



공간 그리크

문화예술정보지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46 Autumn 2022





박상환 - Cat tower
mixed media, 40×40×150cm, 2019.

성공을 외치고, 이상을 좇으며 열심히 현재를 쉬지 않고 걸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이상과 성공의 땅은 저 먼 곳 어딘가에서 그저 열은 빛을 발하고 있고, 우리는 그곳을 밟지 못했다. '그곳은 사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곳은 애초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끝없이 달성하기 위한 신기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공하기 위해 솔하게 뛰었던 걸음들, 내려놓았던 경험들, 미뤄야 했던 관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내 삶에서 결코 당연하거나 가법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그것들을 생각하니 외롭고 서글프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는 여러 가치들이 존재한다. 각자의 이상을 좇느라 외면받고 우선순위에서 미뤄지는 그 가치들을 마주하며 이미 상실한 것들을 후회하기도 하고, 아직 걸을 지키고 있는 것들은 주저 없이 품으며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삶을 걸어가 보자고 말하고 싶다.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46 Autumn 2022

통권 46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 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6.23. 발행일 2022.9.30.
담당부서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 051-744-7707 www.bscf.or.kr
편집위원 박창희 심창신 홍동식 백경옥 신용철 남영희 양화니
편집기획 김정 김지혜
디자인 및 제작 CCA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공감 그리고」는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CONTENTS

04 여는글

날끝산막을 거쳐 영랑대에 오르는 길,
스스로 풍경이 되다

공감의 뱃고동

10 Space

망미 책방 골목 한 걸음

14 Harmony

완월동을 걷는 여자들

18 Issue

15분 도시,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 도시

22 people

일상 속 미술관, 거리에서 피어나는 예술
그래피티 그리고 스트리트 아트

- 구헌주 작가(KAY2)

공감리뷰

- 30 내가 걷는 이 길은...
Art Walking, Art Talking, Art Making
- 부산현대미술관 야외 파빌리온 프로젝트
<Re: 새- 새- 정글(Re: New- Bird- Jungle)>



B-Side

- 36 저마다의 목소리, 독립출판



돌아와요 부산향애 鄉愛

- 42 니, 그거 아냐?
새 랜드마크, 금빛노을브릿지
- 46 누꼬?
문자로 시작되는 무대
김문홍 극작가
- 50 거 가봤나?
만덕고개를 넘다

그리고 재단

- 60 듣기
두 도시의 문화동행!상생과 연대로 나아가기
- 62 말하기
공연예술교류 프랑스 출장기
- 66 보기
주요행사



날끝산막을 거쳐 영랑대에 오르는 길, 스스로 풍경이 되다

글. 심창신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총감독



지난 며칠을 돌아보니 새삼스럽다. 끝없이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살았다.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일에 발목을 잡힌 일상의 반복이었다. 게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포획당한 일상과 관계의 단절은 삶 자체를 옥죄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불안은 일상이 되고, 일상은 불안 속에서 좀체 길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해소가 필요했다. 그 길에서 지리산을 찾았다. 오랜 습벽이다. 시인 이원규는 “행여 견딜 만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고 말한다. 하지만 “굳이 지리산에 오고 싶다면 언제 어느 곳 이든 오시라.”고도 했다. 이 말에 전적으로 기댄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인의 전언을 핑계 삼아 자주 그리고 오래 지리산의 속살을 파고드는 산행에 나섰다. 새벽을 가르며 지리산 품속으로 스며들었다. 함양 추성마을에서 천상폭포를 거쳐 영랑대에 이르는 길이다. 출발한 지 어느새 1시간 반을 넘어섰다. 예까지 이르는 길은 완만한 경사라 호흡이 편안하고 걸음도 가볍다. 계곡물로 목을 축이며 잠시 쉬어간다. 이 길을 거쳐 지리산의 북서면 깊은 골짜기 날끝산막에 이르렀다. 울울창창한 원시림 속에서 깊고 짙은 삶의 그늘을 씻는다. 고단한 나날 속에서 스스로에 위로를 건넨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길이 산그늘만큼 무거워지면 날끝산막골의 숲은 이미 발아래다. 가파른 경사를 오를수록 계곡은 더없이 깊다. 삶의 내력을 말하는 듯한 물굽이는 제 스스로 풍경이 된다. 바위며 산벚나무, 참나무를 품었다가도 때론 햇빛에 온몸을 내어주기도 한다. 계곡은 크고 작은 바위의 너덜경을 따라 작은 소(沼)나 담(潭), 세찬 폭포가 되기도 한다. 오늘 걷는 이 길은 깊고 깊은 협곡이다. 오를수록 각양각색의 폭포가 환하게 맞는다. 비스듬하게 흐르는 와폭(臥瀑), 두 줄기 물길의 쌍폭(雙瀑), 겹겹으로 층층폭포, 큰 물줄기에 들앉은 바위에서 갈라지는 시옷폭포,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안개 자욱한 물안개폭포 등 모양새도 다채롭다. 비 온 후라 폭포는 그야말로



장관이며, 넘쳐흐르는 물소리는 실로 거침이 없다. 계속 듣고 있노라면 끝내 마음이 평온해진다. 폭포 못지않게 이 계절의 흥미로운 볼거리는 이끼다. 바위에 초록 양탄자를 덮은 듯한 이끼는 눈을 시원하게 한다. 줄기, 잎, 가지 구분도 없고 암수한몸의 선태 식물 이끼는 참으로 경이롭다. 단순하기 그지없지만 때 묻지 않은 심산유곡(深山幽谷)을 상징한다. 이끼가 더럽혀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딛는다. 우리 삶의 지친 자리마다 이 초록 용단 같은 원시적 생명력이 깃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산행의 절정은 천상폭포다. 온통 이끼로 뒤덮인 해발 1,500m의 깊은 산속, 물길이 끝났나 싶은 마른 계곡의 끝자락에 10m를 훌쩍 넘는 장대한 폭포가 자태를 드러낸다. 거대한 규모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순초록의 이끼 양탄자 치마를 입은 듯한 자연의 아우라는 송고하기까지 하다. 이 숲에 겨울이 찾아들면

저 물줄기가 고스란히 열고 열어서 청빙의 풍경을 만
들어 내리라. 한참을 올려다보며 지친 발걸음을 쉬어
간다.

산행에서 야생화를 만나는 일도 여간 즐겁지 않다.
계곡을 따라 건다 문득 마주치는 그옥한 산수국은 즐
거운 길동무다. 능선길의 여름 야생화는 특히 눈부시
다. 함께 어우러져 더 빛나는 보라색 쑥부쟁이와 하
얀 구절초, 바람 센 전망대 바위틈에 고개를 내민 별
을 닮은 흰색 난쟁이바위솔, 노란 돌양지꽃, 외롭지
않게 무리지는 분홍 산오이풀, 바위에 황금비단을 깔
아 놓은 듯한 샛노랑 바위채송화, 슬픈 전설을 간직
한 동자꽃, 참취, 정영영경귀, 총총잔대, 흰진범, 투구
꽃과 이름 모를 꽃들이 준비하다. 마냥 눈이 즐겁다.
이맘때 촛대봉과 연하봉 언저리에도 형형색색 야생
화들의 향연이 펼쳐질 게다. 연하선경(煙霞仙境)이라
했던가. 뒷날 반드시 찾고 싶은 곳이다. 나이가 들면
꽃이 이뻐 보인다는 옛말이 가히 틀리지 않나 보다.
계곡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길은 사라진다. 길이 끝
나는 곳에서 비로소 길이 시작된다. 이제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된다. 물길을 건너는가 하면 절벽을 돌
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큰 바위를 오르기도 한다. 자
칫 헛딛기라도 하면 낭패를 당하기 일쑤다. 엉덩방아
를 찧거나 발목을 삐거나 찰과상을 입기도 한다. 바
위에 부딪혀 머리를 다칠 수도 있다. 의외로 생각은
단순해진다. 아예 생각이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한 숨에 한 걸음씩 오로지 걷는 데만 집중할 뿐이
다. 무념무상의 시간이다.

오를수록 비탈길은 급경사로 바뀐다. 호흡은 거칠고
근육은 초긴장 상태에 이른다. 이날을 위해 지난 몇
주 동안 몸과 마음을 잡도리했다.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쿼트, 런지, 뒷꿈치들기, 코어 힘을 기르기 위
해 플랭크와 스트레칭도 꾸준히 했다. 제대로 준비하
지 못해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몸이 무거
워 걷기조차 힘겹거나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여 가슴
이 저리기도 하고, 다리에 쥐가 난 날도 적지 않았다.
그럴 때면 산행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지옥이다. 다행
히 오늘은 걸음이 가볍다. 어제의 준비 결과이기도
하거니와 풍경과 대자연의 경이 덕분이라 하겠다.

어느덧 주능선에 다다랐다. 조망이 좋기로 이름이 드
높은 영랑대에 오른다. 해발 1,700m에 자리한 이 암
봉에서 신라 화랑들이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이곳에서
는 장쾌한 지리산의 여러 능선을 조망할 수 있다.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조금 전 밟아 온 그 길이 선연하
다. 길 없는 길 가운데 계곡이 죽 뻗어 있다. 오른편
으로 두류능선, 왼편으로 초암능선, 그 옆으로 창암
능선, 오공능선, 삼정산능선이 줄지어 서 있다. 더 멀
리 서북능선도 병풍처럼 펼쳐지며, 창암능선 너머로
는 금대산, 투구봉, 삼봉산, 법화산이 낮게 앉아 있다.
시계가 좋은 날에는 덕유산 자락까지 눈에 들어온다.
무엇보다 조망터 바로 왼쪽에는 하봉, 중봉, 상봉(천



왕봉)이 위치해 있다. 안타깝게도 천왕봉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그 너머 연하봉, 촛대봉, 덕평봉, 반야봉도 마찬가지다. 하봉, 중봉이라도 볼 수 있어 다행이다. 희한하게도 가 본 곳은 보이고, 가 보지 않은 곳은 육안으로 찾기 힘들다. 우리의 삶도 이럴까. 지리산 산행길에 늘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다. 광주의 노래꾼 박종화가 부른 <지리산>이다. “나는 저 산만 보면 피가 끓는다, 눈 덮인 저 산만 보면...” 우리 세대는 지리산이라면 굴곡의 민족사를 떠올리곤 한다. 빨치산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1948년 여순항쟁의 주역인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작전에 실패하고 진압군에 밀려 찾아든 곳이 지리산이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북으로 후퇴하지 못한 부대가 살아남기 위해 찾은 곳이기도 하다. 1954년까지 이 산자락에서 피아 2만의 생명이 희생되었다고 추정한다. 지리산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념갈등의 축소(縮圖)다. 매년 9월이면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의 기일을 맞는다. 그날 명선봉 아래 빗점골에서 추모제를 지내는 모임이 있다. 올해도 예년처럼 추모 산행에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 산행에는 품은 목적이 하나 더 있다. 방장문(方丈門) 각자(刻字)를 찾는 일이다. 방장문은 지리산 입구라는 뜻이다. 옛 선인들은 지리산을 두류산 또는 방장산이라 일컬었다. 점필재 김종직은 함양군수 재임 당시 지리산을 유람하고 『유두류록(遊頭流錄)』

(1472년)을 남겼다. 최근 지리 인문 산행을 추구하는 몇몇 산꾼들이 점필재의 기행 코스를 답사하면서 발견한 것이 방장문 각자다. 해발 1,000m에 성인 세 명 키 높이의 큰 바위 상단에 새겨진 반듯한 해서체의 각자에서 고고한 기품이 느껴진다. 조선 후기에 새긴 것으로 추정하는데, 현재 주능선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 옛날에는 이곳 왕래가 잦았기에 지리산 입구라 명명했으리라 여겨진다.

이제 하산이다. 영랑대에서 하봉옛길 중허리길을 거쳐 내려간다. 계획한 목적지를 모두 밟았다. 덤으로 영랑대, 마암, 속밭재, 청이당터, 비밀의 정원도 확인한 터라 발걸음이 홀가분하다. 눈도 마음도 한결 청신하다. 산행의 땀과 흠뻑지도 씻어내지만 일상에 찌든 사념의 찌꺼기도 털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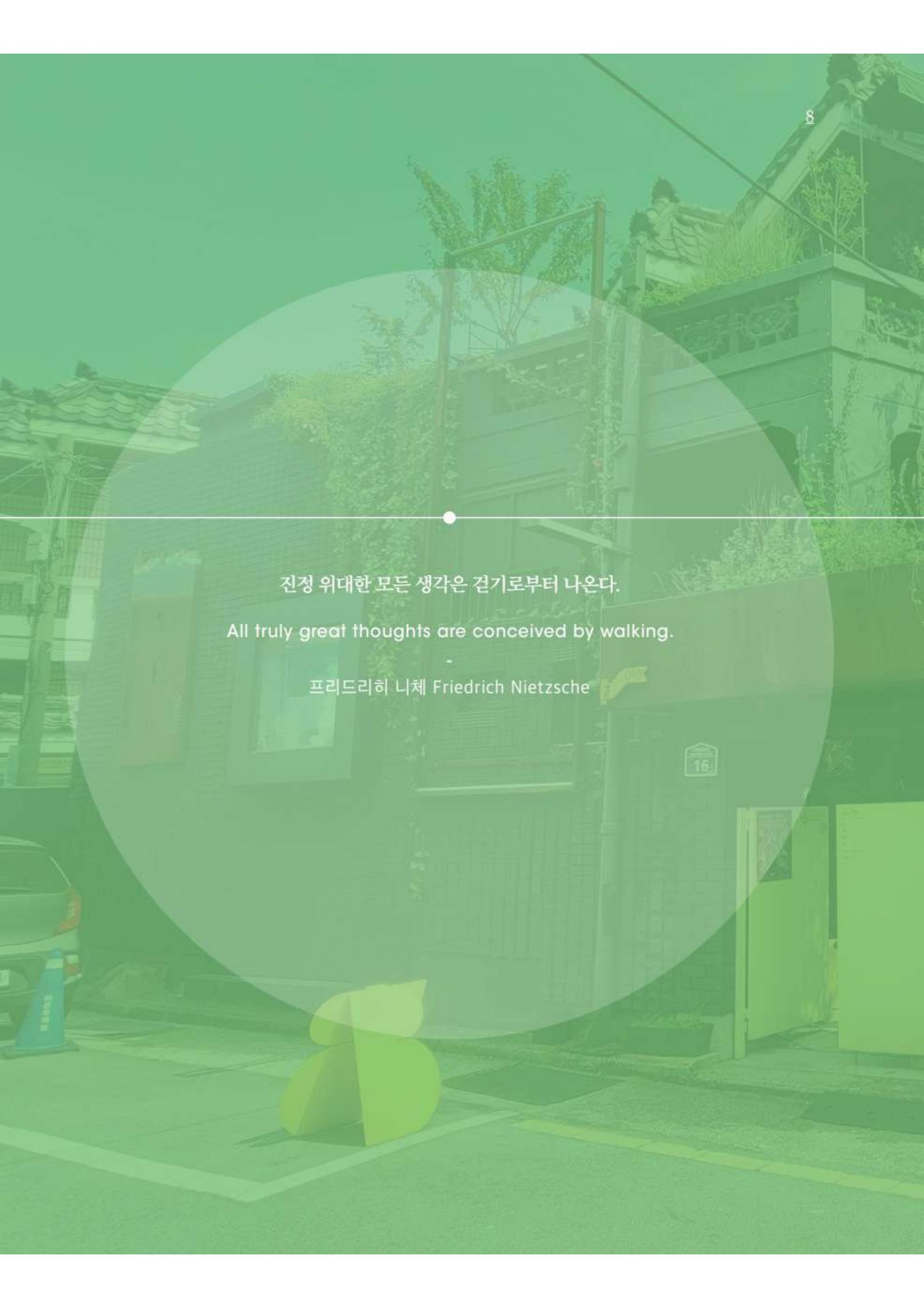
상쾌한 기운의 산행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소환해 본다. 각양각색의 폭포에서 문화의 다양성, 순결한 이끼에서 예술의 고유성, 숭고한 천상폭포에서 예술가의 천재적 상상력, 작지만 아름다운 야생화에서 예술의 미적기능, 무념무상의 힘겨운 발걸음에서 예술의 치유, 웅장한 근육의 지리 능선에서는 다채로운 예술의 조화로움, 빨치산에서 예술의 사회성. 방장문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깨달음을 발견한다. 이로써 나만의 길을 걷는 고집스러운 예술과 더불어 함께하는 예술의 공존을 생각하며 118번째 지리산 산행을 마무리한다. 🌻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All truly great thoughts are conceived by walking.

프리드리히 니체 Friedrich Nietzsche



공감의 뱃고동

10 Space

망미 책방 골목 한 걸음

14 Harmony

완월동을 걷는 여자들

18 Issue

15분 도시,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 도시

22 People

일상 속 미술관, 거리에서 피어나는 예술
그래피티 그리고 스트리트 아트
- 구현주 작가(KAY2)



망미 책방 골목 한 걸음

글. 김민우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



» 망미 책방 골목

텍스트에 한 줄 한 줄 남기는 기억

내게 있어 책을 읽는 일과 책을 기억하는 일은 사뭇 다른 일이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이지만 그 깊이를 파고들면 참 다른 단어라는 걸 체감하게 된다. 기억에는 감각이 서려 있다. 소리와 감촉, 그리고 향기까지 더해져 마음속의 이미지를 살아 숨 쉬게 만든다. 쉽게 휘발되어버리는 정보가 넘실대는 오늘날에도 이 기억들은 녹녹하고, 또 고요하게 나의 시간들을 가라앉힌다.

망미동 책방 골목은 해사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갈 때쯤엔 항상 가슴에 책 한 권씩 곁쪽 파묻은 채 걸었고, 집에 와서는 이야기 바깥의 이야기를 하나둘씩 만

들었다. 책을 읽고, 일기를 적었다. 그 순간들이 너무 따스해 보여서 마음속에 들어찰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들곤 했다. 그 자리엔 함께한 사람과의 풍경이 있었고, 뺏뺏한 종이 내음과 편안한 소음이 있었다. 무엇보다 타인의 영역을 쉽게 침범하지 않는 은은한 한대가 있었다. 그러한 순간이 반복되며, 책을 읽고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일은 놓치기 쉬운 것들 사이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을 건져내는 일과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책을 덮고, 뽀얀 먼지가 그 위에 내려앉을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이 망미 책방 골목에는 남아 있었다.



» 비온후 책방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¹⁾

망미 책방 골목을 마치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망미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 페이지에서는 내가 긴 시간 망미 골목을 걸으며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애정의 마음을 담아 망미 책방 골목을 소개하려고 한다.

망미동에 비콘그라운드를 중심으로 세 개의 책방이 흩어져 있다. 비온후 책방과 동주 책방, 그리고 책방 한타가 각 구역의 거점을 담당하고 있다. 비온후 책방에서는 미술 및 전시, 문화예술에 관련된 서적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책방 한타에서는 철학과 인문학 서적, 또 여러 문학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동주 책방은 국내 1호 자연과학 책방으로 청소년 서적과 과학 서적으로 특화되어 있다. 각각의 책방에서 취급하는 독립 출판물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책방이라는 외적인 형식은 공유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저마다의 개성으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공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서점'의 일반적인 의미는 책을 사고파는 공간이다. '책방'은



» 비온후 책방

꼭 그렇지만은 않다. 책만 사고팔아서 공간을 유지하기 힘든 게 현실이기도 하지만, 책방의 주인들이 단순히 책을 팔기 위해 공간의 문을 열어놓은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우선, 책방은 그 자체로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의 개인 서재이자 작업실이기도 하다. 그만큼 각자의 취향으로 공간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타인의 서재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묻어온다고 하지 않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생각해보고, 직접 얘기해보기도 했다. 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모두 새로운 배움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었다. 녹이 슬지 않는 배움의 자세를 보면서 나는 또 하나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 동주 책방

1) 아티스트 '우효'의 노래 <민들레> 가사

공감의 베통동
+
SPACE

수영도서관

여기는
망미골목
입니다

망미포스코
더샵파크리치
아파트

책방동주

망미중앙시장

스미다

코타피자

아웃할인마트

코카모메

금촌

동산약국

오븐마루

마장동황제축산

치엔이애드

부산은행

남안포차

대박

연자방아

어린이 놀이터

엔제나맑음공방

현대미술회관

아트랩

수영볼백

헬로커피 하이허니

리믹스튜디오

세인플라워

카페밍미

거창까막국수

오늘하루, 쉽표

파도파도

식기전에

가미술 육계장

고래커피 로스터스

구름다리

안동민물가든

말기양치

소미타

비온후책방

홍순덕양곱창

식물기계

아이갸렛버거

F1963

지하철3호선
망미역

앤스하우스

전시공간00

메이시스

헤이체즈

소우뮤직팝

더사인 팩토리

연커면 아이웨어

파우제

책방한타

책방한타

책방한타

책방한타

책방한타

책방한타

책방한타

책방한타

책방한타

책방한타

책방한타

책방한타

호밀밭출판사

정석당

제이크

오프노우

시네포트

토리

커피인

에이주

에이주

에이주

에이주

에이주

에이주

에이주

에이주

에이주

에이주

에이주

에이주

에이주

대하공원

어부의잔치

플러그엠

라르게토

꽃사미로

소담한우

푸르른 BUSAN57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대하공원

어부의잔치

플러그엠

라르게토

꽃사미로

소담한우

푸르른 BUSAN57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대하공원

어부의잔치

플러그엠

라르게토

꽃사미로

소담한우

푸르른 BUSAN57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대하공원

어부의잔치

플러그엠

라르게토

꽃사미로

소담한우

푸르른 BUSAN57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대하공원

어부의잔치

플러그엠

라르게토

꽃사미로

소담한우

푸르른 BUSAN57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수영강 동원로알듀쿠 아파트

» 「망미골목 아름다운 이웃 지도」 비온후 출판사



» 책방 한타

망미 책방 골목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의 온상이기도 하다. 책방 한타 입구에는 항상 달력이 붙어있다. 주로 비어있는 날짜 없이 가득 채워져 있는 편이다. 문학과 비문학을 읽고, 같이 얘기를 나누며 자신만의 글을 쓰는 모임으로 한타의 한 달은 충만하게 흘러간다.

동주 책방에서는 정기적으로 지역 작가 릴레이 북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강연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행사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자신이 책을 좋아하는 참새라면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말자. 비온후 책방은 문화예술 행사로 바람 잘 날이 없다. 한 달에 한 번 책방 옆에 위치한 공간 '보다'에서는 새로운 전시가 열린다. 책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망미 골목 사람들과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중이기도 하다. '심야 책방', '매일매일 책봄', '망미골목 아트앤북 페스티벌'과 같이 동네 단위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도 있다. 행사와 관련한 소식들은 각 책방 SNS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마음이 이끌리는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발걸음을 옮겨보자. 새로운 인연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망미동은 보수동과 함께 부산 책방문화의 중심에 있다. 유사해 보이는 두 장소지만, 사실 뚜렷한 차이가 있다. 보수동 책방골목은 헌책이라는 통일된 키워드로 여러 책방이 줄줄이 정돈된 듯한 인상이다. 반면, 망미동 책방 골목은 공간마다 자기만의 색깔이 강하다. 하지만, 결코 산만하게 느껴지진 않는다. 그 이유는 망미동의 개별적인 공간들이 모여 '망미 골



» 책방 한타

목'이라는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이 모여 장소가 되느냐, 장소가 생겨 공간이 되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망미동엔 크고 작은 변화가 늘 있어 왔다. 몇 개의 작은 서점이 문을 닫았고, 꾸준히 사랑받던 편집숍 비비드는 잠시 휴업한 상태다. 다가치사랑방, 와이스토리 등 새로운 책방과 복합 문화공간이 생기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망미 책방 골목의 분위기가 늘 여전할 수 있는 건 망미 골목이 공유하는 살가운 분위기가 공간마다 뿌리 깊게 서려 있는 덕분일 것이다.

골목을 걷다, 기억을 걷는다

아날로그의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의 시대가 왔다. 핸드폰으로도 손쉽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세상이다. 물론, 그러한 변화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다만, 변화의 물결이 생긴다고 해서 기존의 것이 사라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화 <시네마 천국>이 지닌 감동은 선명한 해상도에 있는 것이 아닌, 영사기사 알프레도의 손때 묻은 필름에 있지 않던가.

흐린 여름이 물러가고 내니 청명한 하늘이 돌아왔다. 망미 골목에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이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책 향기를 전달하고 있다. 망미 책방 골목을 걸으며 마음속에 내려앉은 먼지를 걷어내고 숨은 여백을 하나씩 찾아보자. 빈틈없이 채워왔던 우리의 마음에 아스라이 소중한 기억 하나씩 새길 수 있도록. 오늘도 망미 책방 골목을 걸으며, 나는 또 하나의 기억을 걷는다. 🌻

완월동을 걷는 여자들

글·사진 **변정희**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임대표

코로나19를 피해갈 수 없었던 여름, 1주일 자가격리를 하면서 인기를 끈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뒤늦게 정주행했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러했듯 '해방'이라는 말이 참 좋았다. '여성해방'이나 '노동해방'처럼 거대한 담론 혹은 좀처럼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에 붙을 법한 말이 '일지'라는 이름으로 일상에서 지속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좋았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완월동에 대한 기록 사업을 지속하면서 바로 그 해방이라는 말을 떠올렸고, 완월동 문화예술 아카이브 작업에 부제로 '완월동 해방일지'라는 이름을 붙여보았다.



완월동, 어둠의 땅을 걷는다는 의미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이 해방구처럼 느껴지던 순간이 있었다.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 해였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국회 앞과 완월동 골목을 가득 메우며 시위를 했던 언니¹⁾들은, '살림'과 같은 여성단체를 방문하여 통곡과 절규를 이어갔다. 하루 이틀 시간이 쌓이면서 신뢰도 쌓여 갔고, 여성들의 조직과 전국의 여성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고, 마침내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언니들은 상담과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다른 생계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완월동 안에서 거주하면서 활동가들을 만났다. 유리방, 구매자를 받는 언니들의 방, 완월동 거리 곳곳에 활동가들이 오가며 언니들을 만났다. 유리방 너머로만 보던 언니들을 만나고 그 거리를 걷고 삶을 함께 나누던 그 순간이 해방구처럼 느껴졌다.

완월동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동안 완월동에서 걷는 사람들은 여자의 몸을 사기 위한 구매자들뿐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뚜렷한 용도로 구획 지어진 계획적인 공간. 100년 전 공창제도 아래 그곳의 여성들은 경찰서장 허가 없이는 바깥으로 외출도 하지 못했다. 100년이 지나도 일본식 목조건물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빌딩으로 바뀌었을 뿐, 그곳의 거리와 건물의 용도는 변함이 없었다. 오직 여성의 몸을 전시하기 위한 유리방과 붉은 불빛의 방. 성매매 업소로만 이루어진 거리는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벽이었다.

완월동이 얼마나 두꺼운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체감했던 순간이 있다. 2005년 5월 완월동 문화열기 축제 '언니야 놀자'를 준비할 때였다. 완월동에서 삶을 살아가고, 업소를 나가고 난 뒤에서도 인근 쪽방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언니들에게 활동가들은 선물 같은 축제의 시간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문화기획자들과 수많은 예술가들이 행사 준비에 함께 했다. 그러나 행사 당일, 상복을 입은 인근 상인들과 완월동 업소 관계자들이 '상갓집에 잔치가 웬 말이냐'며 막아섰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전국의 마을에서 축제가 열려도, 단 한 곳, 완월동에서 축제의 시간은 허용되지 않았다. 활동가들은, 예술가들



» 완월동 아웃리치를 가는 활동가들

은 그리고 언니들은 얼마나 견고한 침묵의 벽이 완월동을 둘러싸고 있는지 깨달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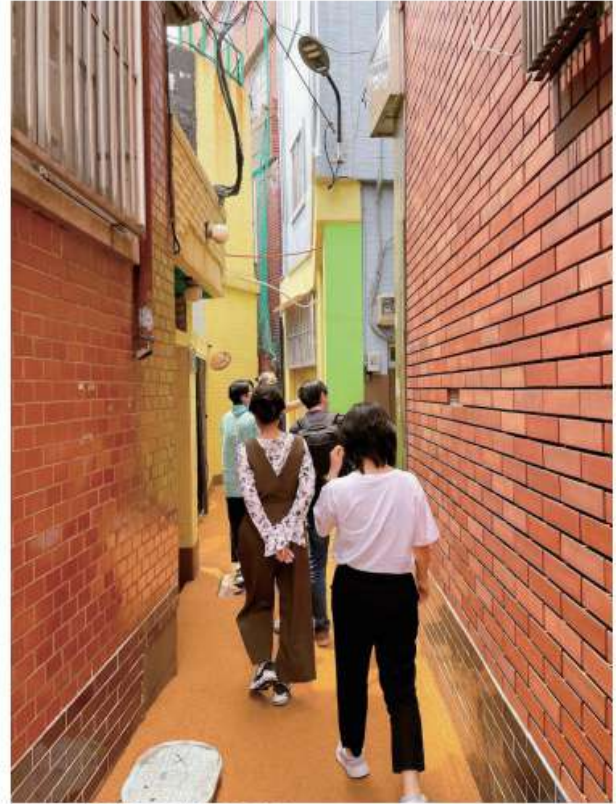
행사가 무산된 이후, 언니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아웃리치 서비스²⁾를 나가던 활동가들을 막아선 것은 업주와 나까이들의 무지막지한 욕설이었다. "이 어둠의 땅에 왜 왔냐"는 저주의 말들. 그 골목을 지나는 것조차 쉽사리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계속해서 그곳의 문을 두드리고 그곳을 걷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완월동을 걷는 여자들. 그 존재만으로도 완월동이라는 공간에 어떤 이질감과 균열을 일으킨다. 그곳이 본래 어떤 야만적인 계획과 목적이 있는 공간이었던가를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1) '살림'에서는 성매매 현장의 피해여성들에게 자매애를 담아 언니라는 호칭을 건넨다.

2) 아웃리치 서비스(out-reach service): '손을 뻗다'는 의미로 현장의 여성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방문 활동을 의미한다.



» 살림, 완월기록연구소가 예술가들과 함께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회의 진행



» 예술가들과 함께 완월동을 걷다

말할 수 없는 것과 이름 붙여지지 않은 문제들

"저그가 색시촌이다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던 할머니는, 완월동 곁에서의 삶에 대한 구술 인터뷰를 요청하자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곳에서 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주민들 누구도 완월동에 대해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한낮에도 두려움이나 공포심 같은 감정이 느껴져 잠시 서늘했다. 완월동뿐 아니라 어느 성매매 집결지에서도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성매매 업소를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세탁소, 미용실, 애견숍, 목욕탕의 사람들에게도 성매매 집결지라는 낙인의 꼬리표가 따라다니지만 그들은 말이 없다. 얼어붙은 침묵의 공간.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그 거리와 골목과 그 마을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없는 것, 이것은 트라우마(외상)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어떤 사실은 너무 잔혹해서 입 밖으로 꺼낼 수 없거나, 그것을 설명할 만한 적절한 언어가 없다. 미국의 한 여성운동가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여성폭력을 '이름 붙여지지 않은 문제'라 불렀던 이유도 그러하다.³⁾ 어떤 활동가는 한 낮에 완월동 유리방 안에 다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고 했다. 한밤에 표정 없는 얼굴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언니들을 형광색 조명 아래 바라볼 때도 말문이 막힌다. 언니들의 삶과 기억도 쉽사리 입 밖에 꺼낼 수가 없다. 상담을 통해 만났던 언니들의 이야기, 우리들이 보고 들은 언니들의 삶 역시 아직 충분히 언어를 되찾지 못했다. 식민지 시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1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완월동은 공간 자체가 한국사의 트라우마이기도 했다.

3) 『여성성의 신화』를 쓴 베티 프리던은 여성폭력의 문제를 '이름 붙여지지 않은 문제'라고 불렀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예술로 말하는 법

삶의 공간과 착취의 공간이 혼재된 채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완월동은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생존의 공간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켜켜이 앉아 있는 집이다. 행정 지명에는 없고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마을이지만 여전히 그 의미 그대로 '완월동'은 살아 있다. 이 침묵과 트라우마의 공간에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외상을 치유하고, 피해자와 시민들이 화해하고 연대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동안 '살림'이 수많은 문화예술 활동과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성매매 문제에 대해, 완월동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실험실 B에서 '살림'은 문화예술과 아카이빙을 통해 시민들이 완월동을 만나고 여성들이 완월동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여성인권의 역사를 기록하는 완월 기록연구소와 함께 예술가들을 만나 문화예술 아카이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고민했다. 우리는 이 작업을 '말할 수 없는 것을 예술로 말하는 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오랫동안 트라우마이자 침묵으로 유지되어 온 공간은 기억도, 기록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누구의 시선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도 매우 조심스러운 주제이다. 문화예술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발견하고 새로운 언어를 찾아 나선다.



» 예술가들과 함께 완월동을 걷다



» 시민아카이비스트 교육 과정 모집



» 시민아카이비스트 교육 모습

이들은 완월동을 새롭게 걷는 사람들이다. 문화예술 아카이빙은 바로 완월동을 걷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완월동을 걷게 되면, 성착취 집결지라는 그 공간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성착취 집결지라는 금기와 트라우마의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간,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완월동을 걷는 여자들, 완월동을 걷는 시민들이 더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매일매일 다르게 걸으면서 '완월동의 해방'을 꿈꾸고 있다. 🌱

THE 15-MINUTE CITY IN BUSAN



15분 도시,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 도시

글. 신지은 부산대 사회학과 부교수

부산의 15분 도시

15분 도시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도시 개조 프로젝트이다. 15분 도시는 걸어서 15분 안에 직장에 갈 수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 더욱 편리하고 여유롭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이는 기후와 에너지 위기, 경제 위기, 사회 갈등 위기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처음 15분 도시 개념을 정립했고,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이를 2020년 재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개념의 핵심은 '개발에서 삶의 질로' 혹은 '경제에서 문화로' 도시 진화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다.

파리시의 정책 추진은 거의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로 과감하다. 이미 정해져 있던 대규모 건설계획의 백지화, 파리 전역에 숲 조성, 디지털 광고판 퇴출, 거리 주차 공간의 70% 이상 축소 계획 등이 그렇다. 꽉 막힌 길에서 출퇴근을 위해 많은 시간을 버려야 하고 최근 이상 기후 현상까지 경험하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우리에게 이 계획은 매우 획기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부산의 15분 도시 계획을 살펴보면 파리의 15분 도시와 이름만 다를 뿐 완전히 다른 계획처럼 보인다.

부산의 15분 도시는 스마트 기술, 생활권역 개발, 문화 관광 거점 개발, 하이퍼루프 첨단 기술 등의 여휘와 결합하면서, 느리고 여유로우며 친환경적인 삶을 가져다줄 15분 도시 비전과 거리가 멀어진다. 여전히 빠른 속도, 개발, 경쟁, 기술, 랜드마크 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 계획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부산의 15분 도시는 '15분 만에'



‘빠르게’ 도시를 돌아볼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처럼 보인다. 15분 도시 계획의 핵심은 빠른 속도가 아니다. 지금까지 양적 개발과 빠른 성장에 매달려 살아온 우리가 놓친 소중한 것들, 예컨대 생태와 돌봄, 공동체, 느낌의 가치와 미학이 그 중심에 놓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로컬푸드 운동이나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한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근거리 생활권 내에서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예술 활동을 기획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부산의 15분 도시 계획도 분명 도시 위기, 지구 위기를 말하고 있긴 하지만 위기 해결을 위해 첨단 기술, 속도, 개발이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스마트한 기술이 사람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지도, 더 윤리적이고 성찰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빠른 속도가 삶의 질을 빠르게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스마트도시가 강조하는 프로그래밍된 경로 안내는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보장해 주겠지만 도시를 함께 공유하는 이들의 삶에 대해 배울 가능성은 제공하지 못한다. 초고속으로 도시를 가로지르는 어반루프에 앉

아서 바깥을 바라보면 풍경도 사람도 획획 지나갈 것이다. 도시를 재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과정에는 남의 고통에 관심을 가질 여유도, 도시의 문제를 인식할 시간, 심지어 다른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15분 도시 그리고 문화인간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문화를 “영혼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이라 표현했다. 인간이 객체화된 문화예술을 자기 삶의 창조적 과정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체적 삶의 가치를 증식시킬 때, 그를 문화인간이라 부를 수 있다. 그저 문화를 소유한다고 문화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객체로서의 문화를 인간의 주체적 삶 속에 통합시키고 그럼으로써 인간이 자기 존재를 보다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것은 긴 시간, 긴 호흡, 느린 속도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런 문화인간들이 만드는 도시가 문화도시일 것이다.

부산은 영화의 도시이다. 부산시는 국제영화제를 통해 영화의 도시라는 도시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해운



» 15분 도시, 부산 계획구상의 열개

대 센텀시티에 자리 잡은 영화 관련 공공기관과 여러 기업들이 부산의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만드는 것은 대규모 영화제 개최, 영화영상 산업 유치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영화를 보고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산에는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를 매개로 한 시민들의 소통과 교육, 공론장 형성을 조용히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의 모퉁이 극장을 들 수 있다.

구도심을 천천히 한 번 걸어보자. 여기저기를 기웃대다가 모퉁이 극장 앞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 선보이는 영화를 한편 보기로 한다. 수동적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함께 영화를 본 사람들과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본다. 그 이야기는 구도심 지역의 어느 작은 카페, 부산의 역사와 현재 혹은 부산 청년의 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 편의 영화가 일종의 사건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문화와 예술의 힘이다. 그리고 이처럼 문화예술이 일상과 결합할 때 시민의 삶과 도시가 보다 문화적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15분 도시 계획은 도시를 거닐 여유, 문화예술을 감상하거나 도시를 성찰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삶의 가치를

증식시킬 기회를 주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고 곧바로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매력적인 도시가 될 리는 전혀 없다.

직선거리로 최대한 가성비 있게 움직이는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문화인간에게는 길을 잃고 헤맬 여유가 필요하다. 발터 벤야민은 숲에서 길을 잃듯이 도시에서 길을 헤매는 것은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헤매는 사람에게 거리의 이름들은 마치 마른 잔가지들이 똑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려오고, 움푹 패인 산의 분지처럼 시내의 골목들이 그에게 하루의 시간 변화를 분명히 알려줄 정도가 되어야 도시를 헤맨다고 할 수 있다." 15분 도시가 우리에게 도시를 다시 발견하고 도시의 다양한 소리와 리듬, 시간의 변화를 느낄 여유를 주길 기대해 본다. 도시의 낯선 환경 속에서 방향을 찾을 줄 알고, 낯선 사람들을 상대할 줄 아는 능력은 거리와 마을에서 배울 수 있다. 거리의 뒤섞인 언어들과 이질적인 문화의 파편들 속에서 그 다양성과 복잡성을 적절히 다루고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것, 이것이 15분 도시에 살아가는 인간이 체득하게 될 문화이자 윤리가 될 것이다. 🌱



» 구헌주 작가(KAY2)

일상 속 미술관, 거리에서 피어나는 예술 그래피티 그리고 스트리트 아트

구헌주 작가(KAY2)

글. 조수진 에디터 / 사진. 윤민호 사진가

전철이나 건물 등의 벽면이나 교각 같은 야외공간에 페인트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graffiti)는 힙합 문화에서 출발해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거리의 예술(street art)'이자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현재 한국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조명(혹은 재조명)이 필요한 작가와 작품 세계에 대한 비평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작가를 어카이빙하는 <작가 조사-연구-비평> 프로젝트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린 구헌주 작가. 그는 다양한 거리예술(스트리트 아트) 작품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무심코 지나치는 골목길도 금세 미술관으로 바뀔 수 있는 거리예술의 힘. 구헌주 작가는 거리 위에서 예술작품으로 그의 길을 펼쳐 보인다.

「공감 그리고」 독자들을 위해 먼저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05년쯤부터 그래피티를 시작해 현재 스트리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구헌주입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장소성에 기반한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여러 그래피티 라이터(아티스트)들과 함께 그래피티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래피티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래피티를 시작한 건 대학교 3학년 말 4학년 즈음이에요. 미대를 다니긴 했지만 열심히 하는 미대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술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교생활은 뒷전이었죠.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 아직 다 정리되지 않은 그 시기에 문득 내가 미대에 왜 왔지,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림이 좋아서 미대에 왔는데 구체적으로 작업에 욕심도 없고 그림은 단지 그냥 제가 할 줄 아는 재주였던 거죠. 좋아서 선택한 일에 불성실한 제가 한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지도 막막한 그때, 일단 재밌어 보이는 것부터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음악과 문화적 취향으로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선불리 시도하지 못했던 그래피티를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처음에는 스프레이로 뭔가를 그린다는 재료적인 재미로 시작했는데 활동하면서 이쪽의 세계, 문화에 더 빠졌어요. 저 또한 그래피티 작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다양한 작가들의 활동을 보면서 또 다시 팬으로서 마니아가 됐고, 그러다보니 더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어요. 부산에서 그래피티가 시작된 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쯤이에요. 보통 1세대의 시작을 그 무렵으로 보는데 저는 조금 늦은 2005년에 합류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혼자 활동했는데, 혼자서 하는 건 기술 익히기밖에 안 된다고 교류를 해보라는 선배의 조언을 듣고 커뮤니티도 찾아보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나중에는 혼자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싶을 정도로 교류 때문에 생긴 시너지가 정말 크다는 걸 느끼게 됐죠.

이번 「공감 그리고」 가을호 주제는 'WALK(걷다)'입니다. 단어 그대로 길·거리를 걷는다는 의미와 함께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인데, 작가님의 활동은 그래피티, 거리예술로 두 가지 의미 모두와 맞닿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작가님에게 '거리예술'과 '거리' 그리고 '걷다'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스트리트 아트, 거리예술은 도심의 거리뿐만 아니라 공공이 공유하는 영역, 외부공간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거리예술은 바깥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고, 정해진 미술공간에서의 작업보다 더 불규칙적이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미지 작업이지요. 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미술에 특화된 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에서 작업한다는 것. 도시든 시골이든 바깥이라는 공간, 서로가 공유하는 일상 공간에서 이미지 작업을 만든다는 게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2010년에 개인전을 열었는데 제목을 <어쩌다 마주친 아트>라고 달았어요. 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거리예술은 어디 가아만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어쩌다 마주친 예술이 아닐까 싶어요.

길은 대부분의 삶에서 이동하는 공간이고 목적지로 가기 위한 수단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 길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인 거죠. 길은 그냥 스쳐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일상을 향유하고 발견하는 공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늘 다니는 길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관광지도 찾을 때마다 매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처럼요. 늘상 스쳐지나가는 공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길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부산대 지하철역 아래 온천천 일대(일명 부대 뚝다리),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 '자이언트 키드', 사상인디스태이션 그래피티 프로젝트 등 부산에서의 활동 이외에도 서울부터 제주까지, 그리고 해외에서도 다양한 작업과 전시를 진행 해오셨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공간의 특징과 메시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공간과 주제를 어떻게 연결해서 구상하고 작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업할 때 공간성에 의미를 크게 두는 편이에요. 공간성을 배제할 때도 공간성을 의식해서 배제하거든요. 그 공간성이라는 요소가 다양한데 특정 공간의 생김새, 물리적인 구조가 될 수도 있고 공간이 위치한 지역의 이야기가 주제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여러 공간성이라는 요소를 조합하고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하거나 혹은 배제했다가 하는 방식으로 바뀌기면서 작업해요. 공간에서 어떤 주제를 캐치하면 그 공간의 모양새에 맞춰서 장소적인 요소들을 비범법처럼 섞을 때도 있고, 의도에 따라 사회적 메시지라든가 지역이 담고 있는 이야기도 다 빼고 그냥 재미만 전달하는 포커스로 갈 때도 있고요.

작업을 하실 때 영감이나 모티브는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잡다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처음에는 음악이나 힙합·서브컬처를 비롯한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했는데, 이런 문화적인 관심이 여러 예술가와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것들, 정치적인 것들, 세상사로 확장된 거죠. 넓고 알을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관심거리를 들여다보고 생각한 것들이 작품에도 자연스럽게 많이 담겨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공간을 발견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 특정 주제가 제시될 때, 여러 가지 관심사 중에서 골라서 꺼내보는 거죠. 여기에 뭘 없으면 재미있을까, 하고요. 원래 좋아하고 관심있는 것들이 작품에 녹아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반대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싶어서 여러 분야에 관심을 두기도 하는 편이에요.



» 구원주 작가(KAY2)



» 2017 손하트



» 2019 헤어지는 손들

통상적으로 주류라고 불리는 미술과는 달리 그래피티, 거리예술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라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미술과 삶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문화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스트리트 아트, 거리예술이 그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일상 속의 예술활동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요즘은 웹 관련 아트워크들이 많아서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발품을 팔고 걱정해서 시간을 맞춰서 찾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의외의 곳에서 발견하는 거리예술이 소소한 사건이고 재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요.

부산에서 그래피티, 거리예술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 몇몇 군데에 제 작품이 그려져 있기도 하지만, 거리예술 전반적으로 부산에서의 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작품 수가 없기 때문에 선불리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 온천천 근처 그래피티, 거리예술이 나름대로 활발했을 때를 생각해봐도 그때그때 많이 다르고요. 저보다 먼저 활동했던 분들이 온천천에서 작업했을 때는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산책로도 정리되지 않았을 시기, 그 공간을 어떻게 발견해서 작업한 건데도 민원이 심했어요. 눈치를 보고 몰래 시선을 피해가면서 작업했는데 점점 작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여기는 이런 공간이야, 하고 자연스러워진 거죠. 초창기에는 10명 중에 9명이 싫어했다면 나중에는 반대로 10명 중에 1명이 불편해하는 정도로 바뀌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청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작품이나 장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인식이라는 것도 제로(zero,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피티나 거리예술에 대한 사례가 많으면 어떤 시선이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말을 할 만큼 작품 수나 현상이 많지 않아요.

그래피티, 거리예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거리예술 활동을 하면서 미술계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나 기획자분들 혹은 이론가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전혀 다른 영역에 계시는 일반 시민분들보다는 이해도가 높으시지만 앞서 말했듯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인지 관점이나 해석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몇몇 유명한 대표작가들 위주로 그래피티나 스트리트 아트가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 해석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깊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 분야를 들여다보면 잘 알려진 소수의 작가들 외에도 수많은 활동이 이미 여러 형식으로 파생되어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같이 보시면 기존 유명 작가들의 활동도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거리예술의 의미가 그냥 단지 몇몇의 사례로만 개념화 됐다고 할까요. 그 몇 가지 사례로 정의됐던 것과는 다른, 다양한 갈래의 재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 2019 사색하는 풍경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반 관객들이나 시민분들께는 그래피티나 스트리트 아트, 공공미술처럼 일상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예술활동을 조금 더 관용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식이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도 따져보려고 하는 느낌이랄까요.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 작가들과 교류하다 보면 작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에 차이가 많더라고요. 사회 분위기나 문화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좀 더 재미있게 보는 것 같고 경직된 사회에서는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시비부터 걸거나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재밌기도 한데, 한번은 혐의된 작업을 진행하는 것임에도 밀착업 과정일 뿐인 스케치를 보고는 지나가던 분이 색상이 어둡다고 핀잔을 주며 항의하신 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 작가 중심의 이기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관객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관용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더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아지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랜 시간 활동하시면서 힘든 점이나 슬럼프는 없으셨나요?

제가 계획적으로 살 거나 스스로를 잘 챙기는 편이 아니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껴요. 물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예술가분들께는 민망한 얘기지만 아무래도 몸을 많이 쓰는 작업이다 보니 예전에는 쉽게 했던 작업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어릴 때는 그냥 재밌어서 혈기왕성하게 작업했는데 미리 운동을 할 걸,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작업을 평생, 최대한 오래 하고 싶은데 활동에도 수명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그때 뭘 그럴까 하는 고민은 늘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작가 분들은 인생 주제처럼 하나의 주제에 몰입해서 개인이 만들었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장황한 작품세계를 열기도 하시는데, 저는 하나의 주제를 끝낸다면 이 장르 그 자체가 아닐까 해요. 앞으로도 그냥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때그때 풀어내고 싶어요. 슬럼프처럼 뭔가가 잘 안 풀리는 특정한 시기가 있는 건 아닌 거 같고, 막혔다 풀렸다 하는 사이클로 가는 듯해요. 이번에는 어떤 걸 보여줘야 할까 혹은 내가 뭘 하면 만족할까 하는 고민의 반복이에요. 그 고민이 힘들면서도 재미있고 하지만 또 지치기도 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만큼 또 쾌감도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는 거죠.

많은 작품과 전시 가운데서도 유독 기억에 남거나 애착이 가는 작업이 궁금합니다.

작업을 시작할 때 이걸 더 열심히 하고 저건 덜 열심히 할 거야,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더 기억에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2008년도 광주 비엔날레 대인시장 복덕방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당시 대단한 작품 하나를 남기겠다는 생각보다는 혼자서 작업하지만 일인다역을 하듯 시장 곳곳에 여러 가지를 남겨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몇몇 작업은 미리 아이디어를 준비해서 갔지만 사실 현장에서 뭔가를 캐치하고 싶었어요. 한 달 이상 광주에



» 2020 젊은 그대



» 2008 episode

살면서 작업을 했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광주를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없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팀에서 잡아준 숙소 창밖을 보다가 해태 공장이 눈에 띄더라고요. 해태 타이거즈가 기아 타이거즈로 바뀐 지도 이미 몇 년이나 지난 뒤고 해태라는 브랜드가 약간은 잊히는 느낌이었어요. 해태 로고를 보는데 나는 부산에서 왔고 여기는 광주고, 롯데랑 해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해태 타이거즈 시절 선동렬 선수가 공을 던지고 가상의 롯데 선수가 그것을 쳐내고 해태 외야수가 공을 잡는 그림을 그렸는데 광주 지역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른 지역 분들은 장미란 선수가 역기 대신 가게 셔터를 드는 이미지 작업을 더 많이 기억하시는데 광주 분들은 그 작품을 너무 좋아해주셔서 기억에 남아요.

최근 진행하신 사상인디스태이션 작업은 어떠셨는지요?

사상인디스태이션 작업은 그림 작업과 별개로 의미가 컸어요. 그림도 그렸지만 오랜만에 기획을 한 작업이거든요. 2011년까지는 그래피티, 스트리트 아트 작업은 물론 기획도 종종 해왔어요. '아지트'라는 공간에서 미술 관련 전시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그래피티 관련 행사나 작가들과의 전시 관련 프로젝트도 기획했는데 10년 전부터 기획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고 꾸리며 기획을 하니 최근 일정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개인 작업 위주로 진행했던 이유가 기획을 하면서 조금 지쳤기 때문이거든요. 기획이라는 게 어떤 멋진 걸 하든 성과가 어떻든 결국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인데 당시에는 조용하는 과정에서 힘든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옛 동료들을 모아서 작업을 하니 재미있더라고요. 준비 과정 중에 예전엔 몸에 배어서 순서대로 진행하던 것들을 놓치고 다시 찾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오래간만에 사람들과 같이 그리는 재밌는 판을 만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작업을 이어나고자 하시는지요? 향후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의 스트리트 아트, 거리예술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형 벽화 형태의 거대한 작업 위주로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연관되는 작업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이야기했던 길거리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소소한 작업들을 다시금 진행해보려고 해요. 한동안 그런 작업이 없어서 그런지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작업을 다시 해보고 싶고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느껴져요. 🍀

여행자들이여, 길은 따로 없다.
당신의 걸음이 길을 만든다.

Traveler, there is no path,
the path must be forged as you walk.

-
안토니오 마차도 Antonio Machado

공감리뷰

30 내가 걷는 이 길은...

Art Walking, Art Talking, Art Making

- 부산현대미술관 야외 파빌리온 프로젝트

<Re: 새- 새- 정글(Re: New- Bird- Jungle)>



내가 걷는 이 길은...

Art Walking, Art Talking, Art Making

- 부산현대미술관 야외 파빌리온 프로젝트
〈Re: 새- 새- 정글(Re: New- Bird- Jungle)〉

글. 김정주 GachiART 대표 / 사진. 부산현대미술관



Re: 새-새-정글(Re: New- Bird- Jungle)

오늘날 현대예술은 예술가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감상 목적으로 하는 전시형 미술과 관람객이 작품제작에 일부 참여하거나 전시 중 작품에 관계하게 되는 참여형 미술, 그리고 지역공동체 내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만드는 과정을 중시하는 커뮤니티형 미술로 크게 나눌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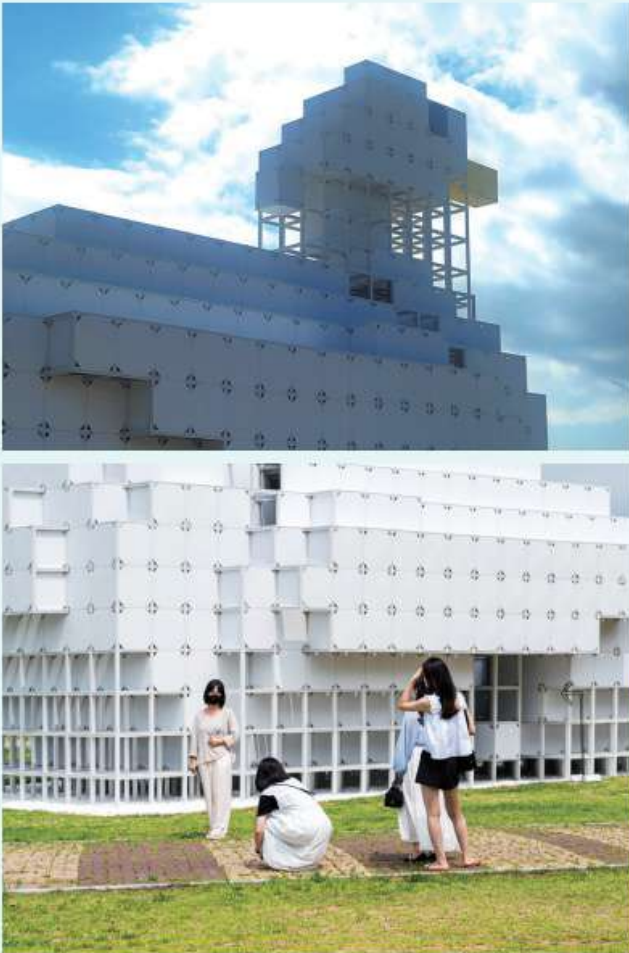
6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부산현대미술관 야외공원에서 진행되는 야외 파빌리온 프로젝트 <Re: 새-새-정글(Re: New- Bird- Jungle)>전(展)은 작품 공간을 감상하고 작품 안팎을 거닐어 보며 사유(思惟)할 수 있는 참여형 미술로 전시되고 있다.

이 전시는 이용열 공간디자이너가 이번 작품의 재료가 되는 재생 플라스틱 모듈을 디자인 제작하고 '재생되는 새로움'이란 의미를 담은 각이브 작가와 콜라보로 파빌리온 작품을 제작했다. 파빌리온은 박람회나 전시장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영구적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물이나 임시 구조체를 의미하는데 작품의 주재료인 재생 플라스틱

모듈은 전국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 27t을 내열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한 고기능성 플라스틱과 가공성이 좋은 폴리염화비닐(PVC)로 분리 사출한 뒤 1만 5천 개의 모듈을 만들었다고 한다.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은 의미가 있지만, 가공, 성형을 위한 에너지 소비와 열처리 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 등 공해는 같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열처리 가공에 의한 재활용은 능사가 아니며 친환경이 아니다. 전시가 끝나면 파빌리온 구조는 해체되지만 작은 단위의 모듈러는 의자, 테이블 등 또 다른 실용품으로 다시 조립 가능한 재활용, 새활용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파빌리온의 구체적 형태는 을숙도 여름 철새 쇠백로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관람객에게 물어보면 고니나 오리를 언급한다. 각이브 작가도 인터뷰에서 말하듯 기본적인 모듈 형태의 표현에 애로가 있었겠고 구조적 안정성도 고려하니 실제 쇠백로의 형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리서치 과정 중 설치 전시될 낙동강 하구 을숙도를 거쳐 거주지를 이동하





는 철새에 주목하고 여름 철새인 쇠백로를 모티브로 선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작품의 이미지는 고니가 연상된다. 10월경 찾아와 이듬해 4월까지 낙동강에 머무는 철새 고니는 날 수 있는 조류 중 가장 크고 아름답고, 한자어는 백조(白鳥), 우리말로는 고니라고 불린다. 낙동강 큰고니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DATA)에 멸종위기 관심종(LC)으로 등재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 2급에 천연기념물 201-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철새이다. GachiART에서 사회적기업 연구원 의뢰로 개발 제작한 친환경 패키지 및 비누 몰드 디자인 중 쇠제비갈매기, 상괭이, 고리 도롱뇽, 낙동강 하구 맹꽁이와 더불어 부산의 상징 동물이다. 전 세계에서 이 새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도시가 놀랍게도 부산의 낙동강이라고 한다. 더욱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대교 개

발의 철회 운동으로 철새 도래지 보존과 자연보호가 부산 핫이슈로 되어 있다. 작품의 형상도 그러하니 낙동강 큰 고니를 부각하여 작품의 의도와 같이 환경보호에 의미를 담아 전달하는 매개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두 작가의 평면에서 입체구조체에 대한 고민, 설치 전시 될 야외에 그늘막과 생기를 주는 공간 연출의 필요에 기인한 작품에 기능을 더한 시도, 새와 나무, 파도가 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길 바라며 재사용 플라스틱 물질에 대한 관심유발, 작품재료의 다른 용도, 기능으로의 재활용. 그리고 작품 공간에서 휴식하고 감상하는 참여형 미술로 사람, 자연, 물질에 대한 관계 미학을 관람자에게 던지는 메시지 등은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주고 있는 작품이다.



가치 있는 문화활동으로 걸어가는 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과 같이 상상하여 가치를 찾고 같이 창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이란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아트 GachiART는 부산지역을 연구 학습하여 부산다운 문화예술콘텐츠를 진행한다.

<부산 Gachi 찾가- 사랑 海 부산> 프로그램으로 부산의 포구를 중심으로 탐방하고 지명 유래와 지역 특징 등을 살펴보고,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로 변화될 요소를 찾고 소통하며 포구 주변의 해안 쓰레기 수거의 비치코밍을 진행한다. 비치코밍으로 수거된 쓰레기를 재료로 현장에서 리사이클링 아트 체험의 시간도 가진다.

피서가 끝난 지금 무렵과 태풍이 와서 해양쓰레기가 해안가를 뒤덮을 때 시민들과 GachiArt 아티스트가 출동한다. 해마다 진행하며 어떤 해에는 12번을 진행한 적도 있

다. 부산 사람으로 부산을 학습하여 부산을 가꾸고 부산을 제대로 안내하는 것이 GachiART가 가야 할 길이라... ‘Gachi공작소’에서의 자원 순환, 탄소 중립, 기후 위기를 환경과 미술의 교육·체험프로그램으로 생활 실천하는 것. 버려지는 폐자원을 미술 재료로 활용하는 리사이클링(재활용)·업사이클링(새활용) 아트작품 제작과 국내외 전시 기획, 그리고 고민하여 구매하고 오래 쓰고 더는 쓰임이 없을 땐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달팽이 마켓(플리마켓)’ 운영. 같이 연구된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하는 ‘Gachi 콜로키움’ 토론과 다양한 예술을 쉽게 소개하는 ‘Gachi ARTalk concert’ 등이 GachiART가 가야 할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며 작지만, 가치 있는 문화 활동으로 시민들과 같이 오늘도 내일을 향해 걸어간다. ☀

나는 천천히 걸지만 절대로 뒷걸음질치지는 않는다.

I walk slowly, but I never walk backward.

에이브러햄 링컨 Abraham Lincoln

B-Side

36 저마다의 목소리, 독립출판

저마다의 목소리, 독립출판

글 정진리 도서출판 베리테 대표

“진보란 세밀한 분류를 지향하는 경향이다.” 들뢰즈의 표현이다.
둔중한 정의가 다양하고 세세해질 때 진보한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독립출판을 품은 출판 시장 또한 지난날에 비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출판, 비주류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독립출판은 출판 시장의 새로운 바람이다. 과거, 지금처럼 매체가 발달하지 않을 무렵 책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작가와 같은 저자는 식자층의 대표격으로 존경받았고 책을 쓰는 자격 또한 특별한 이에게 주어진다든 관습적 믿음이 분명 세간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절을 통과해온 오늘날 출판 시장은 독립출판의 도약과 함께 그러한 무거움을 내려놓고 점점 가볍고 폭넓게 웃을 갈아입고 있다.

독립출판이란 다양한 분야의 개인 또는 소규모 공동체가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를 콘텐츠 삼아 출판 전 과정을 거쳐 책을 만드는 출판행위다. 기존 상업출판과 달리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대중을 타깃으로 삼지 않으며, 소량 제작하여 대형서점이 아닌 소규모 독립서점 또는 개인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하고 판매한다.¹⁾ 기성 출판사의 상업 논리를 벗어나기에, 영리를 추구하거나 대중에게 특정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하려는 목적에서 자유롭다. 대신 독립출판은 개인(소수집단)의 관심, 취향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데 앞장선다. 출판사의 엄격한 잣대에 몸을 맞추지 않아도 되니 저자는 플랫폼에 소규모의 책을 직접 출판하고 유통한다. 처음에는 개인의 놀이에 가까웠던 소규모 출판행위가 이제는 여러 집단에 공유되면서 마침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였다. 독립출판이 문화의 한 축임을 순순히 인정해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스스로 '비주류'를 자처하는 독립출판은 기존 문화

를 매개하던 플랫폼의 빈틈을 적절히 메우며 문화예술은 물론 각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자와 독자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점 또한 독립출판이 견인한 하나의 현상이다. 서울아트북페어와 같이 매년 개최하는 독립출판물페어의 몇몇 인터뷰에 따르면 행사에 참가한 독자들 중 일부는 이듬해에 저자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작가의 말을 무작정 섬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누구나 제 할 말을 쓰고 편집하여 세상에 공개해 나름의 설득력을 얻거나 공인받을 수 있다.

부산의 독립출판, 비치리딩 시리즈와 부산 디지털북 아카데미

독립출판물이 급증하니 이를 취급하며 상생하는 독립서점 또한 늘어났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돌림병이 유행하면서 오프라인 서점 대신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독서 인구가 찾는 출판 영역이 넓고 파편화되었다.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를 파고드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매대에 놓인 책에 시선을 빼앗기는 대신 부러 소수파를 자처하는 이른바 '힙한' 세대에게 독립출판물이란 하나의 패션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개개의 독서 관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작금의 흐름에 독립출판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작지 않을 것이다.

1) 구선아·장원호, 『독립출판 증가현상의 사회적·심리적 요인』 『지역사회학』 제19권 제1호, 2018, 104p.

BOOK TALK

여름휴가는 서점어때?

북토크로 시원하게!

**북토크
참가비 1만원**
(시리즈 책 1권
증정 포함)

BOOK

 <p>바다의 문장들 1 장항열 지음</p> <p>더 넓고, 더 시원한 삶을 위한 52개의 문장과 단상</p> <p>비온후책방 × 호일밤</p> <p>08.18(목) 오후 7시</p> <p>문의 : boonwhobook@naver.com</p>	 <p>부산-포구를 걷다 동강산 지음</p> <p>나를 지우고 나를 새우는 특별 여행 산문집</p> <p>비온후책방 × 해린원</p> <p>08.19(금) 오후 7시</p> <p>문의 : boonwhobook@naver.com</p>	 <p>라면 먹고 걸래요 라사영 글,그림</p> <p>거침없이 스타일(스타일)의 우등학사의 고군분투를 읽은 조디.김민</p> <p>스타레오북스 × 인디메이커</p> <p>08.19(금) 오후 7시</p> <p>문의 : steresbooks05@gmail.com</p>	
 <p>부산 바다 커피 박수영 일가록 지음</p> <p>남도도시 부산의 커피와 카페를 둘러보는 커피 여행 에세이</p> <p>소년소녀책방 × 미디어룸</p> <p>08.18(목) 오후 7시</p> <p>문의 : sonyosnyobooks@gmail.com</p>	<p>부산의 독립서점 × 비치리딩시리즈</p> <p>북토크 참가비 1만원 (시리즈 책 1권 증정 포함)</p>		 <p>먹구름이 바다를 삼킬 무렵 김주영 정경심 문화유서 지음</p> <p>부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새 가지 새터의 정서다만집</p> <p>무사이책방 × 인디메이커</p> <p>08.20(토) 오후 2시</p> <p>문의 : muse004@naver.com</p>
 <p>홀모킹 송진 지음</p> <p>사물과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자구의 시간엔 다들만 걸라므로 노래한 시집</p> <p>북방카프키의밤 × 옥엽정</p> <p>08.21(일) 오후 3시</p> <p>문의 : goodnight_kohal@naver.com</p>	 <p>남아강에 대하여 강동근 지음</p> <p>취임과 침몰대 같은 뒤죽박죽 소설집</p> <p>무사이책방 × 베리더</p> <p>08.27(토) 오후 3시</p> <p>문의 : muse004@naver.com</p>	 <p>우리들의 바다 김나영 박상영 지음</p> <p>바다를 소재로 부산의 일과 작가들이 그린 클래시스 그림책</p> <p>남독서당서점 × 남여의어울</p> <p>08.31(수) 오후 5시</p> <p>문의 : jggirewill@naver.com 주소 : 부산광역시 4동</p>	

» <비치리딩 시리즈> X 지역서점 컬래버

그런데 이곳 부산에서는 독립출판의 현황이 어떠한가. 출판과 독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출판계의 오래된 현실이다. 서울 인근이 아닌 지역 출판사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열악하며 대개 규모가 작고 매출도 크지 않다. 독립출판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는 없다.

하여 올해 초, 부산에 터를 두고 있는 출판사들이 합심하여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를 발족하였다. 협회 가입사 40여 곳 중 1인 출판사가 30곳이 넘는다. 대부분 출판 기획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한편 출판 그 자체에 매력을 느껴 자생적으로 탄생한 독립출판사다. 협회는 부산 출판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으는 한편, 1인 출판사와 같은 독립출판 또한 기성 출판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협업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다.

당장 지난여름, 협회에 소속된 출판사 7곳이 함께 모여 <비치리딩 시리즈>를 기획하고 출간했다. 바닷가에서 혹은 여행지에서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가벼운 내용과 분량으로 준비한 책이다. 출판사 7곳 중 4곳이 독립출판사며 8권 중 5권이 독립출판물이다. 부산이라는 키워드만 공유할 뿐 그 밖의 성격은 각 출판사의 재량에 맡겼다. 독립출판의 독특한 개성을 해치지 않되, 함께 문체 디자인과 같은 편집부터 홍보, 유통의 노하우를 손쉽게 공유했다. 나아가 부산에 위치한 지역서점들과 컬래버하여 북토크를 열었다.

그런가 하면 8월에는 <부산 디지털북 아카데미>를 개최해, 사양길에 접어든 종이책의 대안인 전자책, 오디오북 등 디지털 기술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디지털북 관련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또 파편적으로 진행되어온 측면이 있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앞으로 독립출판을 꿈꾸는 미래 출판인들이 체계적이고 전문



» <부산 디지털북 아카데미> 교육 현장

적인 역량을 갖추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향후에도 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와 협업이 이뤄질 것이며, 부산의 출판 시장이 독립출판을 바탕으로 활기를 얻으리라 기대해본다.

고유한 언어로, 저마다의 색으로

21세기에 이르러 출판 영역은 분명 가벼워지고 있다. 어도브스의 '인디자인'을 비롯하여, 책의 조판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누

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기능 또한 직관적이다. 소규모 인쇄나 제본 또한 이제는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비싸지 않은 가격에 맡길 수 있다. 유통을 담당하는 배본소를 구하는 노하우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홍보 창구는 이미 우리에게 친숙하다. 바야흐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책을 내는 시대다.

물론 누구나 책을 낸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분명 지난날의 엄격한 기준은 전문성을 강조해 무분별한 저자를 가려냈다. 돈만 있으면 약인도 자서전을 내는 오늘날 책의 권위는 예전만 같지 않다. 책 본문이 제련하고 조탁한 내용으로 정돈되었으리라는 확신을 더 이상 갖기 어렵다. 책이 가벼워지면서 책임도 가벼워졌다. 독립출판물을 내는 저자들이 엄두에 두어야 할 지점이다.

그럼에도 독립출판은 작가의 출판 영역의 빈틈으로서 지금보다 더 기능해야 한다. 들리지는 죽었고 시간은 많이 흘렀다. 아직도 우리가 가진 분류 도구는 단조롭고 초라하다. 사람마다 결이 있고 취향이 있고 고유한 언어가 있다. 그것들을 이런저런 논리 하에 하나로 통치하지 않고 저마다의 색깔로 풀어줄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또한 보다 운택해질 것이다. 책이라는 물성 바깥에서만 기웃거려야 했던 말들과 취향 모두를 백과사전적 지식 안에 당당히 편입시키는 데 독립출판이 분명 일조하리라 믿는다. 🌱



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생각도 흐르기 시작한다.

Me thinks that the moment my legs begin to move,
my thoughts begin to flow.

헨리 데이비드 소로 Henry David Thoreau

돌아와요 부산향애 鄉愛

- 42 니, 그거 아냐?
새 랜드마크, 금빛노을브릿지
- 46 누꼬?
문자로 시작되는 무대
김문홍 극작가
- 50 거 가봤나?
만덕고개를 넘다

돌아와요부산항에

+

니, 그거 아나?

42

새 랜드마크, 금빛노을브릿지

글. 최정란 시인



지하철 2호선 덕천역에 내린다. 5번 출구로 나간다. 증권회사, 안과, 보청기, 통증의원, 당구장, 치과, 요양병원, 편의점, 제화점을 지나간다. 입간판 지도가 위치를 알린다. 북구 낙동대로 1773번지 구포시장. 붉은 바탕에 노란 영문자가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준다. 검정바탕 정사각형 안의 흰 별 기호 옆에 '금빛노을브릿지'라고 적혀있다. 여기가 오늘의 목적지다. 여기서 출발이다.

"북구명칭,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보이는 버스 정류장, 물음표가 달려 있는 의문문과 명칭을 바꾸기를 원하는 이유가 적힌 게시판이 눈에 들어온다. "지역의 특징과 고유성 없이 방위개념으로 표현된 우리 구 명칭을 지역인지를 높이고 구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지명의 고유기능 회복과 정체성 확립,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역의 정체성 고민을 미루어 짐작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리 위로 올라간다. 순식간에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푹 트인다. 금빛노을브릿지는 북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보행전용 인도교이다. 382m 길이로 구포시장에서 화명생태공원을 잇는다. 이 브릿지의 역할을 거칠게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본다. 하나는 전망대, 다른 하나는 하늘길, 나머지 하나는 랜드마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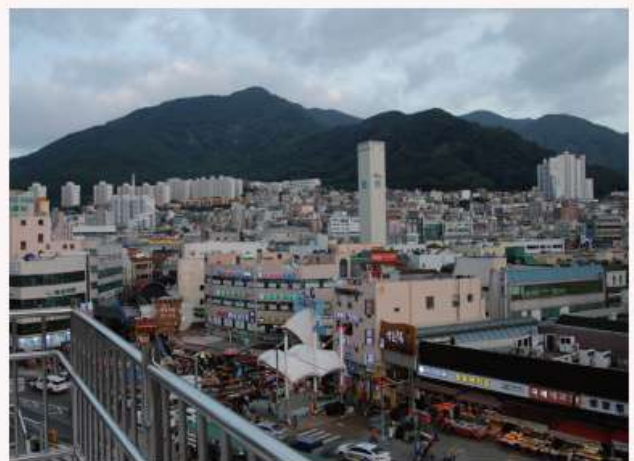
첫째, 금빛노을브릿지는 전망대이다.

아름다운 노을과 풍광을 넘어 강과 밀접한 지역성(locality)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전망대가 너무 높으면 삶과 사람이 사라지고 풍광만 남기 쉽다. 이 전망대는 알맞은 높이에서 문화와 삶의 구체성을 아우르며 지역의 현재성과 역사성을 보여준다. 지역의 지정학적 조건과 낙동강 하구의 생태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도시재생산업을 경유하여 지역의 미래성을 헤아려보게 한다.

먼저 지금 이곳의 치열한 삶의 현장, 구포시장과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 구포는 물산이 모이는 장소인 동시에 사람과 생각이 모이는 장소다. 지척의 덕천로터리 역시 부산-김해-양산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핫플레이스이다. 여러 물산과 사람이 모이고 교역하는 중심지가 생성될 수 있는 지리적 조건과 동시에 역사성을 보여준다.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구포시장의 뿌리가 되는 감동진 나루는 조선시대 낙동강 유역 삼대 나루 중 하나로, 낙동강 수운을 이용한 물자 이동의 중심이었다. 나라에 바치는 현물 조세가 모이는 감동진 나루에 전세, 대동미, 호포, 삼세물량을 저장하는 조창인 감동창이 설치되어 번영하였다. 남창, 삼세조창으로 불리며 구포의 상업을 견인하던 감동창은 구한말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기 위한 선적장으로 쓰였다. 브릿지에서 내려다보이는 감동진 나루터에서 구포시장의 발생과정을 시간을 거슬러 찾아볼 수 있다.



» 구포시장 입구 중앙동(일제시대)_북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진제공



» 금빛노을브릿지에서 내려다 본 구포시장 입구



» 금빛노을브릿지에서 바라다 본 석양

전망대가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 역사는 일제강점기 만세운동이다. 구포만세거리는 1919년 3월 구포시장의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거리이다. 구포역으로부터 구포시장 입구까지 약 600m에 달한다. 역사, 예술, 문화를 품는 문화예술콘텐츠이다. 경남은행 전신인 구포은행과 구포역이 설립됐던 이 거리에 제국주의의 횡포에 분노해서 만세운동을 벌인 열사들의 명패를 비롯한 벽화, 액자, 태극기 등이 재현되어 있다. 구포만세거리에서 구포국수 체험관도 만날 수 있다. 구포국수는 왜 더 쫄깃하고 맛날까? 하구에서 불어오는 해풍, 강에서 증발하는 습기, 맑고 강한 햇빛 삼박자가 국수의 면을 탄력 있고 감칠맛 나게 건조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대쪽 전망대에서 강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가까이 남쪽으로 도시철도 구포역은 범선을 형상화하였다. 밤이 와서 조명이 밝혀지면 캄캄한 어둠의 강물 위를 떠가는 유람선 같은 착시효과가 장관이다. 북쪽으로 가까이 구포대교가 보인다. 조금 더 북쪽으로는 크고 흰 돛 두 대를 단 범선처럼 대동화명대교의 상단이 보인다. 김해 대동과 북구 화명동을 연결하는 이 다리에 이어진 산성터널은 금정구로 연결된다. 연결과 소통을 생각하자 지역의 미래가 예측된다.

둘째, 금빛노을브릿지는 하늘길이다.

빠른 속도로 차들이 질주하는 인공의 아스팔트 강과 기차가 달리는 철의 강을 가로질러, 인간의 도시와 강의 자연을 이어준다. 아마도 이 역할이 본래의 건축 목적과 취지에 가장 부합할 것이다. 낙동강 유역에 발달한 북구는 동래로 가는 만덕고개를 향해 동쪽으로 뻗어나간다. 휘어진 강둑은 길쭉한 반달 형상의 넓고 평평한 배후습지를 품고 있다. 이 배후습지에 화명생태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남북으로 뻗은 자동차전용도로인 팔차선 강변도로와 경부선 기차길이 도심과 생태공원 사이를 가로지른다. 대조적인 두 공간 사이를 공색한 지하도가 딱딱딱딱 연결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시원한 하늘길이 뚫린 것이다. 금빛노을브릿지를 건너가는 발 아래 강변을 따라 남으로 북으로 차들이 바쁘게 달린다. 질주하는 차들의 행렬이 일으키는 바람소리가 거칠다.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은 아닌지 기차길은 고즈넉하게 비어 있다. 어느새 다리의 끝에 다다랐다. 강의 배후습지에 조성된 연꽃단지가 가까이 내려다보인다.

전망대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내려간다. 갈맷길 6-3 구간이 연결된다. 국가지점번호 '마라 36569193' 이정표를 지나간다. 키 높이가 넘는 갈대숲 사잇길을 걸어가자니, 조금 전에 떠난 시장이 전생 같고 꿈같다. 생태공원은 복잡한 사람세상의 밀도와 무게와 속도를 순식간에 무화시킨다. 이곳에서는 인간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인자일 뿐, 자연과 공간을 공유하고 공존하며 공생한다. 저절로 심호흡이 일어나며 강바람에 숨결이 시원해진다.

셋째, 금빛노을브릿지는 랜드마크이다.

작게 보면 부산 북구의 랜드마크이고, 크게 보면 낙동강을 하나의 유기체로 해석한 랜드마크이다. 화명생태공원에서 브릿지를 멀찍이 올려다보며 어변성룡을 떠올린다. 어변성룡은 잉어가 변해서 용이 된다는 뜻,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뜻이다. 등용문이라 불리기도 하므로 과거 급제의 의미도 있다. 강원도 황지의 작은 샘 구문소에서 발원하여



» 금빛노을브릿지에서 내려다 본 나루터



» 금빛노을브릿지로 올라가는 계단

천삼백 리를 꿈틀대며 내려오는 동안 낙동강은 거대한 용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남해바다로 들어간다. 용으로 변신한 낙동강을 거칠게 추상화하여 조형물을 만든다면, 유리나 철이 결합된 이런 모습의 현대건축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역에 많은 도시와 마을을 거느린 낙동강은 영남지방을 관통해서 흐른다. 바다로 들어가기 직전 강 하류에 세워진 이 랜드마크는 유역의 개별 지자체에 의해 파편적으로 이용되는 낙동강이 재발견되고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연구되어야 할 시점임을 환기시킨다. 석양 무렵 강에 금빛 윤슬이 반짝일 때 하늘 가득 용의 비늘처럼 빛나는 상상을 펼쳐본다. 해가 지면 조명을 밝히지 않아도 제 안의 열정으로 색색의 빛을 밝히며 자체 발광하는 신비한 동물이 나타날 것 같은 상상이 더해진다.

한참을 멈춰 서 있다. 먼저 눈이 초록으로 가득 찬다. 자주 닫고 싶던 귀가 크게 열린다. 바람소리, 강물소리가 도착한다. 피부에 서늘하게 강바람이 닿는다. 개울과 자갈돌들이 내려 보낸 먼 상류의 소식이 강물냄새에 희미하게 실려 온다.

시장에서 따라온 잡동사니 생각을 내려놓고, 자연이 주는

선물, 강이 주는 선물을 두 다리로 기쁘게 받을 시간이다. 타인의 속도에 맞추느라 앞서지고 자빠지며 허겁지겁 걷던 속도를 내려놓는다. 조금 더 느리게 혹은 조금 더 경쾌하게 자기 페이스에 맞는 가장 알맞은 속도로 걷기만 하면 된다. 물려다니는 작은 물고기 떼가 여름에 연꽃이 무성했던 연못 사이 나무 데크를 걸어가는 발걸음을 사로잡는다. 부들과 피어나기 시작한 코스모스와 눈 맞춘다. 무성한 갈대숲과 속이 시간에 파 먹힌 늪은 버드나무, 회화나무, 물푸레나무, 느티나무 그늘을 드나들며 걸어간다. 수시로 나타나는 갈림길은 즐거운 선택의 기회가 된다. 강의 상류를 향해 걸어갈 수도 있고, 하류 쪽으로 걸어갈 수도 있다. 강의 본류 쪽으로 걸어갈 수도 있다. 수상레저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다. 강가에 서거나 앉아서 그저 흐르는 강물을 멍하니 바라보는 물명에 빠져도 좋다. 물 위로 높이 튀어오르는 송어를 만나거든 오래 전에 떠난 바다의 안부를 물어도 좋을 것이다. 강을 따라 생태습지 수변오솔길을 걸어간다. 이 순간 마음도 강이다. 🌀



문자로 시작되는 무대

김문홍 극작가

글. 김지훈 극작가



» 김문홍 극작가 (사진촬영 김홍희 사진작가)



김문홍 작가는 2022년 6월 『섬섬옥수』라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희곡집을 발표하였다. 부산을 중심으로 희곡, 소설, 아동문학, 영화평론, 연극평론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문학가 김문홍 작가의 저변을 연극과 희곡에 집중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희곡을 쓰는 것은 마치 우연과 같습니다. 문학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누자면 시, 소설, 희곡인데 유달리 희곡을 쓰는 작가는 드물고, 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이나 순수문학을 업으로 삼는 전문 작가조차 희곡을 타 장르에 비해 낮은 장르로 받아들입니다. 극작가에게 소설이나 시라는 장르는 매우 익숙한데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극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저는 또 다른 극작가를 만나게 되면,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희곡집을 마지막이라 말씀하시고 있으셔서인지, 그 최초도 궁금합니다. 희곡을 쓰게 된 계기와 최초의 작품에 대해 여쭙어 봅니다.

1980년도에 <수직 환상>이라는 연극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1972년에 부산교육대학교에 입학했는데, 늦은 입학이었다. 그 때 내 나이가 스물여덟이었다. 우리 입학 동기들보다 여덟 해를 늦게 들어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복학생들 중에는 내 또래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연극을 하고 있었다. 그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어울리다보니 나도 덩달아 연극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부산교육대학교 극예술연구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된 거다. 처음에는 연기를 했다. 교내 학생들을 위한 교내 공연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조연급으로 아마도 여섯 일곱 작품을 했던 거 같다. 졸업하고도 밖에서 두서너 작품을 더 했다. 근데 대사를 잘 못 외우겠더라.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이거 배우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는 연출을 했다. 근데 이것도 못하겠더라. 연출이 작품을 분석하고 작품을 재창조하는 데 머리를 써야 되는데, 외적인 일이 더 골치가 아프더라. 그래서 아 이거 연출 계속하다가는 오래 못 살겠구나 해서 (웃음) 접었다. 아니 접을 생각이었지.

1976년 첫 희곡을 쓰기도 전에, 세 가지 장르로 등단을 했다. 『한국문학』 창간호에 중편 소설로 등단을 했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금액이었다. 그 당시에 교사들 봉급이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였는데, 상금이 100만 원이었다. 그리고 중앙일보사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들을 위한 잡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소년중앙』이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앙일보 동화부문 신춘문예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단편동화로 또 등단을 했다. 같은 해에 한국문인협회에서 모집하는 동시로도 등단을 했다. 이미 어디 가면 작가라는 소리를 듣는 등단한 작가였던 셈이지.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배우도 못하겠고 연출도 안 한다고 하니, 단원들이 그럼 이미 등단한 작가니 희곡을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 그 말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셈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극단을 이끌던 부산교대 극예술연구회 지도교수의 연출로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데뷔를 했다. 그 작품이 바로 <수직 환상>이다.



연극이라는 집단 예술 특성상 휩쓸리듯 시작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제가 극을 쓰기 시작한 연유도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선생님 역시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으신 거 같아 또 한 번 반가울 따름입니다. 앞서 말씀을 들으니 희곡 발표 전 이미 여러 가지를 장르로 다양하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곡이라는 장르에 가장 큰 애정을 쏟고 쓰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소설집이 한 6권이 나왔는데, 40년 넘은 세월에서 6권 같으면 많은 분량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니, 청탁 원고만 썼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 동화집은 대략 30권 가까이 책으로 만들었다.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며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을 상대하는 문학인 동화를 많이 쓰게 됐다. 그런데 다른 희곡 외 다른 장르는 뭔가 보람이 없었다. 독자와의 소통이 어려워 그랬던 거 같다. 희곡은 달랐다. 연출가와 배우들을 통한 종합 예술로 무대화된다. 공연이 되면 객석에 앉아서 다른 관객들과 함께 내 공연을 보고, 관객의 반응도 볼 수 있다. 주위의 반응을 통해 내 작품의 반응을 즉각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현장 속에서 무언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 직접성과 현장성이라는 매력 때문에 소설이나 다른 장르보다는 좀 더 희곡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쪽 해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

공감합니다. 관객들이 공연장에서 그것도 내가 쓴 작품을 보고 웃고 울 때 비로소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제야 나도 편히 웃고 울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여섯 번째 희곡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집에서 특별히 애정을 느끼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받으셨으면 하시나요?

조선 후기 최북이라는 실제 모델을 가지고 쓴 작품이 있다. 『눈보라치는 밤 집을 떠나다』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화가가 주인공이다.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술가가 무엇 때문에 예술을 하는가? 또 예술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자기 그림에 대한 평을 듣고 고뇌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술에 대한 사랑을 한번 다뤄보고 싶었다. 아직 공연화 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이 작품에 가장 큰 애착을 느낀다. 재미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늘 그렇듯 관객들이 선명하진 않더라도, 고뇌할 수 있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

창작에만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공연들을 정말 많이 보십니다. 부산에서 하는 거의 모든 극 공연을 관람하고, 여러 지면이나 SNS를 통해 짧게라도 평을 남기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부산 연극에 대한 애정이 많이 느껴집니다.

연극평론 매체가 부산에 거의 없다. 지금 매체라고 있는 게 1년에 두 번씩 나오는 연극 비평지 『봄』이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예술, 그중에 가장 꽃은 종합 예술 성격이 강한 연극이라 생각한다. 연극은 한 번 공연되면 보통 사라져 버린다. 남는 거라고는 팸플릿, 포스터, 그리고 사진 몇 장밖에 안 남는다. 물론 때로는 촬영도 하겠지만 연극은 직접 현장에서 봐야 한다. 영상으로 보면 연극 맛이 안 난다. 그러니까 연극은 한 번 공연하면 사라지는 거다. 부산에서 한 해 동안 대략 50편에서 60편 정도의 작품이 공연화 된다. 공연하고 나면 이 작품이 남는 것이라고는 평범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 작품이 완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글로써 남겨놔야 하는데 안 남겨놓으면

오십여 편의 작품들이 다 사라지는 거다. 어쨌든 이게 쌓여야 연극사에서 하나의 기록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기록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지면이 허락한다면 그곳에 연극 평을 남기고, 그게 안 될 때면 SNS에라도 평을 남긴다.

앞서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번 희곡집이 아쉽게도 마지막 희곡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은퇴를 결심한 이유와 앞으로 쓰실 글들은 어떤 것일까요?

내 작품이 대략 서른다섯 편정도 공연이 됐고, 희곡집은 여섯 편 나왔다. 공연된 게 거의 대부분이고 공연 안 된 게 서너 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희곡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희곡은 태생부터가 공연을 위한 문학이라고. 그런데 부산 연극판에서 희곡을 청탁하는 극단이 거의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공연이 안 되면 희곡은 아무 필요 없단 말이지. 여러 이유로 공연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많다. 그게 은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공연이 돼야 되는 데, 공연도 안 되는 희곡을 계속 애써가면서 쓸 패기가 사라져 버렸다. 희곡은 희곡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나에겐 희곡과 연극은 함께 병행되어야 의미가 큰 것 같다. 앞으로 계획은 그동안 쓴 걸 묶어가지고 일곱 번째 소설집을 내고, 소설도 그만 쓸 계획이다. 아마 마지막까지 쓸 장르는 손주들을 위해서 쓰는 동화들이 아닐까 한다. 물론 연극 평론은 계속



쓸 생각이다. 다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새 대사가 잘 들리지도 않아 그게 좀 걱정이다.

선생님을 위해 배우님들이 좀 더 크게 대사를 해주시고, 배우의 발성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후배 극작가들, 넓게는 연극인 들에게 우리는 연극을 또, 희곡을 어떻게 해야 하고, 써야 하는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연극으로는 큰 돈 못 번다. 그러니 우리가 연극을 할 작정이라면, 연극을 통해 돈 벌 생각 말고, 연극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함을 각오해야 한다. 연극뿐 아니라 모든 예술이다 그렇다. 예술을 통해 예술 자체를 쟁취해야지 다른 것을 쟁취하려들면 본인 스스로도 괴로울 것이다. 연극 자체가 목표나 목적이 돼야지 연극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건 문학도 마찬가지다. 문학이 목표가 돼야지 문학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을 잊지 말고 연극을 해주기를 바란다. 힘들겠지만, 가끔 한번씩 왜 연극을 하지 무엇 때문에 연극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 관객이 두렵고 연극을 허술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자기 각오가 필요하다. 극작가도 마찬가지다. 내가 뭐 때문에 희곡을 쓰지? 어떤 희곡이 좋은 희곡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희곡을 쓰지? 그런 걸 가끔가다 한 번씩은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희곡을 써야 하고, 연극을 해야 한다. 그것은 초심에 모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초심을 잃지 말았으면 한다. 🍀

만덕고개를 넘다

글·사진 문진우 사진가

만덕동은 금정산 줄기의 상학산과 백양산 아래 큰 골짜기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명의 유래는 여러 설이 있다. 고려 전기에 창건된 만덕사라는 절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1740년 동래부지(東萊府誌)에도 만덕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된 지명임에는 틀림없다.



» 석불사



유년 시절의 추억

만덕동은 어릴 적 외가가 있던 동네다. 외가는 일본에서 해방을 맞아 들어온 귀국동포다. 처음 들어와 강서 대저에 삶의 터를 잡았고 대저에서는 제법 부농이었다. 외가는 어머니 출가 후 점차 가세가 기울어 만덕으로 이사를 와서 조그만 과수원을 했다.

초등학교 여름방학이면 종종 외가를 갔었다. 낮에는 온종일 자연과 더불어 뛰어다니며 놀았다. 밤이면 원두막 호롱불 아래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장난쳤던 기억도 생생하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면 풀벌레 소리를 듣고 밤하늘 별을 보면서 잠을 청했었다. 영화 제목 같이 '내 생애 가장 소중한 시절'임에 틀림없다. 외가의 위치는 광덕물산(당시에도 현재의 위치에 있음) 맞은 편 언덕쯤으로 기억이 된다. 낡은 버스를 타고 먼지 날리는 비포장 길을 달려 광덕물산에서 하차를 했으니... 50년 이상 지난 지금도 만덕을 지날 때면 그 시절들 생각이 난다.



» 만덕고개서 본 구포 일원



» 만덕 레고마을



» 만덕동 은행나무길

레고마을과 BTS 정국의 어린 시절 흔적 그리고 은행나무길

구포에서 만덕터널 가기 전에 우측으로 보면 백양산 중턱까지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그중에 아주 이색적인 모양의 집들이 눈에 들어온다. 집들의 모양이나 색깔이 마치 규칙적으로 세워진 레고 모양과 비슷해서 일명 레고마을이라 불린다. 신만덕 교차로에서 하차해서 10여 분 걸어올라 가면 레고마을이다. 1986년 국민주택으로 지어진 주거단지이다. 멀리서 본 전체적인 모습도 특이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집집마다 잔디 마당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서 삭막한 아파트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레고마을과 붙어 있는 백양중학교와 두어 블록 떨어져 있는 백양초등학교는 BTS의 멤버인 정국이 다녔던 학교다. 학교라 딱히 볼 것은 없다. 다만 정국이 이곳 출신이란 것이 처음 알려졌을 때는 열성 팬들이 성지투어 하듯 다녀갔다고 한다. 동네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은행나무길이 등장한다. 가을이 되면 도로 전체가 노랗게 물들 만큼 아름답지만 아직은 이르다.

만덕사지와 당간지주

밭길을 만덕사지로 옮겼다. 만덕 제1터널 동래 방향으로 가다 보면 터널 가기 전 좌측에 만덕사지가 있다. 만덕사의 창건과 폐사 내력에 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990년 부산박물관에서 금당(법당 내지는 대웅전)지로 추정되는 곳을 일부 발견하였다. 출토된 유물(3층 석탑, 당간지주 형식 등)을 토대로 고려 전기에 창건되어 후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는 금당지 오른쪽으로 가건물 만덕사가 들어서 있다. 금당지 주변으로 현장에서 출토된 기와 조각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만덕사지(상), 현재의 만덕사(하)



» 고려 때 쌓은 만덕사지 석축



» 만덕사지 당간지주

당간지주는 만덕사 200여m 아래쪽 하천 옆에 서 있다. 나지막한 담장에 둘러싸여 있다. 발견 당시 지주가 하나만 남아 있었으나 2014년 현재와 같이 복원하였다. 당간지주가 있는 위치를 보면 옛날 만덕사 절 규모가 얼마나 큰 사찰이었는지 가늠이 된다.



» 석불사

석불사

석불사는 만덕사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면 10여 분, 도보로도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석불사로 가는 차도 옆으로 테크길이 잘 되어 있어서 산책 삼아 걷는 것도 나쁘지 않다. 걷다 보면 확 트인 공간이 나온다. 가까이 산 아래 텃밭, 만덕동에서부터 저 멀리 구포, 700리를 이어온 낙동강 하류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석불사는 1930년 창건되었으니 그리 오래된 사찰은 아니다. 다만 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군으로 이름이 나 있는 사찰이다. 입구에 들어서면서 받는 느낌은 그냥 밋밋하다. 그러나 대웅전과 칠성각 사이로 난 좁은 계단을 오르는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수려한 금정산의 자락을 등에 업고 서 있는 거대한 암벽에 크고 작은 불상이 새겨져 있다. 그 수가 무려 29구에 달한다. 모두 1950년부터 1960년 사이에 제작되었으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불상의 양식적 특징이 현대 불상의 양식에 적절히 녹아들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 만덕고개 터널



» 만덕고개 산책길



» 만덕고개서 본 동래풍경

만덕고개

만덕고갯길은 조선시대에 동래와 구포를 다니는 상인들이 넘었던 길이다. 석불사에서 내려오면 중간쯤 위치에서 왼쪽으로 경사가 가파르지 않은 오르막길이 나온다. 물론 차가 다니는 2차선 도로이다. 도로 옆 데크 길을 따라 천천히 10여 분 정도 올라가면 만덕고개 정상이 나온다. 만덕고갯길은 경사가 가파르지 않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서 걷기에도 좋지만 사이클을 타기에도 적당하다. 고개를 넘어 온천동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번에는 동래구·연제구·해운대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 목을 축일 수 있는 약수터도 만날 수 있다. 4시간여를 걸었지만 힘들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만덕고갯길 트레킹을 추천한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

내 앞에서 걷지 마세요,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니.
내 뒤에서 걷지 마세요, 이끌지 못할 수 있으니.
그저 내 옆에서 걷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Don't walk in front of me; I may not follow.
Dont' walk behind me; I may not lead.
Walk beside me and just be my friend.

알베르 카뮈 Albert Camus

문화촌

그리고 재단

- 60 듣기
두 도시의 문화동행! 상생과 연대로 나아가기
- 62 말하기
공연예술교류 프랑스 출장기
- 66 보기
주요행사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문화재단

두 도시의 문화동행! 상생과 연대로 나아가기

글.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영·호남의 교류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2000년대 이후 국제교류가 국가 간 교류에서 도시들과의 교류로 확장되어 문화교류의 양상이 달라졌다. 국내에서도 지자체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특히 영·호남 교류는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민주정부가 수립되면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991년 11월 9일에 창립된 '영호남민간인협의회'는 부산과 광주 문화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민간단체 대표들이 "지역감정과 갈등을 향토애와 민족화합의 긍정적 정서와 풍토로 전환,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상호 지혜·경험·정서를 나누는 연대를 다질 것"을 선언한 협의회는 오늘날까지도 상생의 오작교가 되고 있다.

또한 민간 영역에서의 교류는 지자체들의 협력으로 이어져 1998년 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협의회'가 출범했다. 이어 이들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자본금을 출연해 '동서교류협력재단'을 만들어 '상대 지역 바로 알기'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한국 현대사에서 부산과 광주는 민주주의 항쟁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 쌓였던 정치·사회·경제·문화·종교 등 각 부문에 걸친 여러 모순의 폭발이었고,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촉진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으로서 민주주의 역사의 이정표가 되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돼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부산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교류

지난 7월 4일 부산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은 교류협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2012년 2월 협약서 서명 이후, 10여년간 영·호남 문화예술인 교류협력, 재단 운영역량과 사업성과 상호교환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해오면서 문화재단 간 협력사업의 롤 모델(Role model)로 주목 받았다. 그동안의 교류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장애인 문화예술교류 행사를 교차 추진하는 등 협력 분야를 확대,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부산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이 실질적인 문화예술 교류협력 사업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부산문화재단 ↔ 광주문화재단 협약내용>

2012년 협약내용

1. 영·호남문화재단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
2. 지역문화 주권 확보와 분권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및 각 지역재단으로 확산
3. 영·호남 전통문화예술 콘텐츠 교류 및 공유
4. 영·호남재단 운영역량과 사업성과 상호교환
5. 양 지역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2022년 협약내용

1. 문화분권,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연대
2. 문화예술 · 분야 교류협력
3. 문화예술인단체 교류 지원
4. 문화재단 직원 인적 교류
5.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하여 합의한 사항

선행 조치로 우선 양 기관이 세부 협의를 바탕으로 교류 사업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과 인력, 사업을 배치하고 내년부터 바로 실행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몇 가지 사업제안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단이 고유목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창작지원, 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 교류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공연장상주단체사업에서 상호교류 분야를 신설해 정례화하는 것과 문화예술교육축제 기간에 협력프로그램 참가 및 상호방문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역 특화사업의 교류이다.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인 광주프린지페스티벌과 부산거리예술축제 상호교류 공연, 조선통신사 문화교류 사업에 광주문화재단 참여 및 전통예술 공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부산과 광주의 예술인, 예술단체들이 정례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한다.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레지던스 사업에 부산작가가, 휴티아트센터에 광주작가가 입주하는 것이다. 단체들의 교류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중 문화예술 교류지원사업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을 함께했으면 한다. 광주문화재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전국화세계화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뮤지컬 <광주>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한 관현악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뮤지컬 공연과 교류음악회, 포럼 등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상호 연대의 프로그램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역사는 기록되지만 예술은 기억됩니다." 경험과 기록된 소중한 민주주의 역사를 공유한 부산과 광주는 이제 문화예술 교류를 매개로 시민과 예술인들에게 기억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FESTIVAL

 D'AVIGNON

공연예술교류 프랑스 출장기

글 사진 옥지는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지난 7월,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닫혀버렸던 '해외교류' 사업의 빗장을 드디어 다시 열었다. 재단은 부산지역 공연 예술인들의 국내외 작품 유통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인식해왔다. 이에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등의 대형 축제, 현지 극장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공연예술인의 해외진출 및 유통 기회를 확대하고, 부산의 거리예술축제와 2023년 추진할 공연예술마켓 개최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직접 프랑스로 향했다.





» 아비뇽 페스티벌



» 아비뇽 오프 사무국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Avignon OFF Festival)

한여름 프랑스 남부 특유의 무더위를 체감하며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 오프’)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페스티벌 오프 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Village du OFF’로 향했다.

페스티벌 오프 공동대표인 David Harold와의 공식 미팅을 통해 부산의 공연예술단체가 페스티벌 오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페스티벌 오프 사무국에서는 해외 공연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작품에 맞는 공연장을 매칭해주는 것 외 별도로 해외팀을 초청하는 등의 형태로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공연 스텝, 출연진 등 인력 컨트롤과 홍보 등의 전반적인 진행은 공연팀이 직접 해야 하며, 다음해에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늦어도 당해 연도 9월까지의 프로그램 신청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현재 10개국 정도가 참여하는 인터네셔널 코너에는 내년부터 20개국 정도의 나라를 추가할 예정으로, 부산문화재단과는 현재 페스티벌 오프와 대만이 교류하는 ‘TAIWAN IN AVIGNON’ 프로그램처럼 부산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하거나 아비뇽 극장장들과 함께하는 국제 컨퍼런스 및 아트마켓 형태의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비뇽 현지 극장(Théâtre des Halles, Théâtre du Chêne Noir)

아비뇽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식 사무국을 통하는 방법 외에도 극장과 직접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아비뇽에 있는 수많은 극장들 중 Halles 극장(Théâtre des Halles)과 Chêne Noir 극장(Théâtre du Chêne Noir) 두 곳에 방문하여 함께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Halles 극장의 극장장이자 예술감독인 알랭 티마(Alain Timâr)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꾸준히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에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주프랑스한국문화원 등과 공연을 공동제작 하는 등(2010~2011)의 활동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높은 상태였다.

Halles 극장은 ‘제작극장’으로, 운영방식은 크게 ①프랑스 팀을 연출하는 방식, ②다른 나라 팀을 연출해서 극장에 올



» Chêne Noir 극장



» Halles 극장

리는 방식 두 가지이다. 또한 극장의 프로그램은 ①페스티벌 프로그램, ②극장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2023년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이미 다 확정되었고, 2023년 9월부터 진행되는 극장 프로그램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결정한다고 한다.

부산 예술단체의 공연을 Halles 극장에서 올릴 경우 알랭 티마 감독이 직접 연출에 참여해야 한다. 그 외 부산 예술가와의 워크숍, 세미나, 강의 등의 다른 형태의 교류도 가능하다.

Chêne Noir 극장은 12세기 교회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120석과 300석 두 개의 공연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 영화, 아틀리에, 책읽기 등과 같은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제작극장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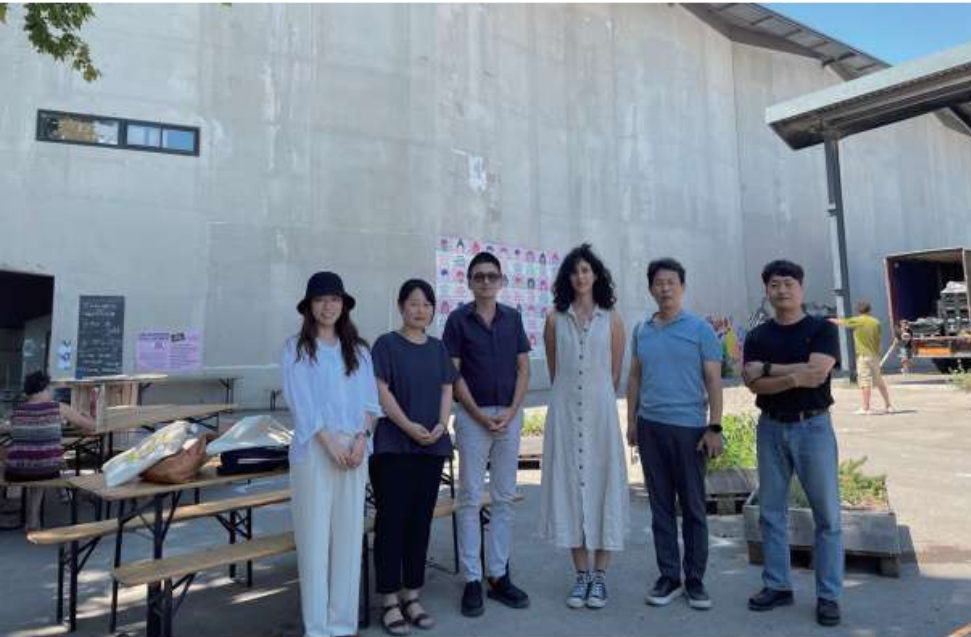
1년 치 프로그램은 한 해 전 5월에 확정된다고 한다. 또한 중국과 이미 몇 년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던 터라 아시아권 교류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었다. 부산과 교류하게 된다면 부산 예술단체의 공연을 올리는 것 외에도 본인들의 공연을 한국에 진출하거나 교류 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문화교류 형태의 사업을 희망했다.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La Cité des arts de la Rue) - Lieux Public

부산거리예술축제(BUSSA) 초청 등 거리예술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프랑스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에 상주하고 있는 국립창작센터 리유 뷔블릭(Lieux Public)을 방문했다.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는 약 3,600평의 부지로, 숙소, 연습실, 공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년에 40개 예술단체 레지던시를 운영 중이며, 2003년부터 270명의 해외 아티스트(21개 나라)와 교류, 유럽 18개, 지중해 11개의 파트너 기관(단체)을 두고 있다.

이곳은 우범지역에 속한 해당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화활동을 위해 가장 많은



» 리유 뷔블릭 관계자와의 미팅



»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유 뷔블릭(Lieux Public)은 기본적으로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돕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예술가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들어 예술가가 거리에서 헤드셋을 끼고 뒤로 걸으면서 음악을 듣는 콘셉트의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섭외해 주고, 마르세유 역에서 도심까지 도미노를 하는 프로젝트를 원한다면 관련된 허가사항들을 도와준다.

부산문화재단과는 부산의 예술단체가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에서 워크숍, 연습 등을 하고, 세계 최대의 거리예술축제 중 하나인 샬롱거리예술축제(Festival Chalon dans la rue)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어딜 가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져있었다. 그와 함께 '부산'이라는 지역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와 더불어 프랑스에서 만난 관계자들의 흥미를 돋우기에는 충분했던 듯하다.

우리는 한국에 돌아와 현지에서 직접 나눈 이야기들을 사업적으로 구체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2일, 부산거리예술축제 공식세미나에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의 Lieux Public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본격적인 협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그 외에도 2023년에 진행할 부산공연예술마켓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산의 공연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 속 아름다운 남프랑스의 풍경과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축제의 장, 그리고 지구반대편에서 13시간을 날아온 우리를 환대해준 프랑스 관계자들과의 시간이 부산의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요행사



2022. 10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9/19(월)~11/25(금) 10:00~18:00 감만창의문화촌
상상갤러리 4차 기획전
감만창의문화촌 층간 공간을 활용한 전시 운영
- 9/27(화)~11/10(목) 전시 장소별 운영 시간 상이
부산광역시청, 영화의전당, 동래고등학교, Campus D 부산, 아난티 힐튼 부산
<청년 예술작품 구독> 사업 2회차 전시
부산 시각예술분야 청년예술가 작품을 일정기간 구독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산 기관·기업 주요 공간에 전시 운영
- 9/28(수)~10/11(화) 10:00~20:00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센텀시티몰 B2F 중앙광장
청년 아트페어<UNDER39>
부산 시각분야 청년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아트페어 운영
- 10/1(토)~2(일) 13:00~20:00 부산시민공원
부산거리예술축제
<춤추는 도시, 거리를 흔들다>
- 10/1~2 메인행사
- 10/2 폐막퍼포먼스 흔들거리#2
다양한 춤 장르 부산예술가들의 퍼포먼스 및 시민참여형 공연 진행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스트리트 댄스, 등 공연)
* 10/2(일) 14:00 부산시민공원 안용복방
한국-프랑스 거리예술 국제교류 세미나
- 10/1(토)~10/2(일) 11:00~18:00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2022 생활문화 페어 <프렌즈>
부산시민과 생활문화 등애리가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축제

- 10/1(토)~10/30(일) 매주 토, 일 13:00~18:00
부산시민공원 기억의 기둥 일원
2022 문화예술 플리마켓 <부기상화>
예술창작자들의 작품 판로를 지원하고 시민과의 문화예술 소통의 장 마련
- 10/1(토)~10/14(금) 10:00~17:30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이벤트홀
유네스코 5주년 기념사업 '조선통신사 예술로'
1711년 등성행렬도를 테마로 한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5주년 기념 특별 전시
- 10/1(토)~10/3(월) 14:00
10/8(토)~10/10(월) 14:00
10/15(토), 10/22(토) 12:00
10/23(일) 13:00, 10/28(금) 18:00
조선통신사 역사관 외
기록물 창작놀이 공연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활용한 창작놀이 공연
- 10/1(토)~10/14(금) 9:00~18:00 조선통신사 역사관
조선통신사 회원체험 결과전시
조선통신사 회원체험 결과물 전시
- 10/5(수)~10/19(수) 10:00~18:00 홍티아트센터
릴레이 개인전 <홍보미>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개인전7

주요행사



2022. 10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0/8(토)~10/22(토) 14:00~16:00 감만창의문화촌
안녕하세요 예술씨 3회차
어린이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험·과정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 10/8(토) 19:00 사상인디스테이션
2022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상설공연 <마이스테이지> 1회차 밴드 마라
인디뮤지션, 기획자, 레이블에게 공연 인프라 지원을 통한 인디음악 활성화 도모

- 10/15(토) 19:00 사상인디스테이션
2022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기획 공연 인디위홀 2회차 <인디 블라썸>
부산을 대표하는 밴드와 함께하는 인디 공연

- 10/15(토)~11/12(토) 매주 토요일 감만창의문화촌
BS ARTE 아카데미 <예비인력과정>
부산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 10/18(화)~10/27(목) 19:00~21:00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소란동
개수작(개인의 수작)클래스 4회차 <작곡 클래스>
청년문화예술가가 주도하는 참여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10/22(토)~11/20(일) 10:00~17:00 스포원 (월·화 휴관)
공간문화예술교육 '상상여행, 다시 만난 세계'
지역공간을 기반으로 한 아동, 가족대상층에 맞춘 스토리형 융·복합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10/28(금)~29(토) 10:00~18:00 흥티아트센터
흥티아트센터 오픈스튜디오 하반기
흥티아트센터 오픈스튜디오(하반기)
- 기획전시, 작가스튜디오 개방, 체험프로그램 등

- 10/29(토) 19:00 사상인디스테이션
2022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상설공연 <마이스테이지> 2회차 스타아트 브릿지
인디뮤지션, 기획자, 레이블에게 공연 인프라 지원을 통한 인디음악 활성화 도모

- 10월 매주 화, 금 10:00~12:00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지역특성화 생활문화 프로그램 <악기빌리지>
부산 시민의 1인 1악기 문화를 정립하여 문화예술 저변 확대

- 10/29(토)~10/30(일) 10:00~18:00 감만창의문화촌
감만창의문화촌 감만상상페스티벌 / 오픈스튜디오 예정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 특화 축제 및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 10/29(토) 15:00 F1963 스퀘어
F1963 오픈스퀘어 4회차 예정
다양한 장르의 실험적인 무대를 재구성한 공연 진행

주요행사



2022. 11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9/19(월)~11/25(금) 10:00~18:00 감만창의문화촌
상상갤러리 4차 기획전
감만창의문화촌 층간 공간을 활용한 전시 운영
- 9/27(화)~11/10(목) 전시 장소별 운영 시간 상이
부산광역시청, 영희의전당, 동래고등학교, Campus D 부산, 아난티 힐튼 부산
<청년 예술작품 구독> 사업 2회차 전시
부산 시각예술분야 청년예술가 작품을 일정기간 구독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산 기관·기업 주요 공간에 전시 운영
- 10/15(토)~11/12(토) 매주 토요일 감만창의문화촌
BS ARTE 아카데미 <예비인력과정>
부산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 11/5(토) 19:00 사상인디스테이션
2022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상설공연 <마이스테이지> 3회차 밴드 새나
인디뮤지션, 기획자, 레이블에게 공연 인프라 지원을 통한 인디음악 활성화 도모
- 11/11(금)~11/25(금) 10:00~18:00 흥티아트센터
릴레이 개인전 <최수환>
흥티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개인전8

- 11/12(토)~11/26(토) 14:00~16:00 감만창의문화촌
안녕하세요 예술씨 4회차
어린이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험·과정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 11/12(토) 19:00 사상인디스테이션
2022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상설공연 <마이스테이지> 4회차 빌로우
인디뮤지션, 기획자, 레이블에게 공연 인프라 지원을 통한 인디음악 활성화 도모
- 11/14(월)~12/28(수) 전시 장소별 운영 시간 상이
부산광역시청, 영희의전당, 동래고등학교, Campus D 부산, 아난티 힐튼 부산
<청년 예술작품 구독> 사업 3회차 전시
부산 시각예술분야 청년예술가 작품을 일정기간 구독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산 기관·기업 주요 공간에 전시 운영



주요행사



2022. 11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11/18(금)~12/18(일) 10:00~20:00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6층 신세계갤러리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지원 <청년예술가 3인전>
재단과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신세계갤러리가 공동 주관한 시각예술분야 청년예술가 3인전
- 11/26(토) 19:00 사상인디스테이션
D.O.C(Dance On the CATs) 2회차
댄스 토크 콘서트
- 11/28(월)~12/30(금) 10:00~18:00 감만창의문화촌
상상갤러리 5차 기획전
감만창의문화촌 층간 공간을 활용한 전시 운영
- 11/1(화)~11/10(목)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소란동
개수작(개인의 수작)클래스 5회차
<실크스크린 클래스> 예정
청년문화예술가가 주도하는 참여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11/5(토)~11/27(일) 10:00~18:00 F1963 석천홀
F1963 기획전시 3회차 예정
레지던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부산 지역 레지던시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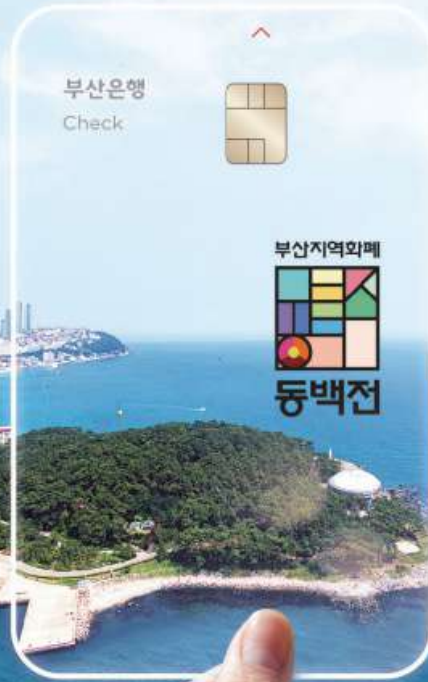
- 11/12(토) 15:00 F1963 스퀘어
F1963 오픈스퀘어 5회차 예정
다양한 장르의 실험적인 무대를 재구성한 공연 진행
- 11/12(토) 부산시민회관 중극장
2022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최우수 연출가 선정작 공연 예정
2022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최우수 연출가 선정작 공연



지역화폐 동백전!

지역경제 동반자!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참조하시거나 동백전 고객센터(1577-1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745(심의일자 2022.06.27) 유효기간 2022.06.27 ~ 2023.06.23

계간지 「공감 그리고」 주요 배포처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배포를 희망하시는 문화공간이나 단체는 부산문화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051-745-7224)

감만창의 문화촌/조선통신사역사관/CATs 사상인디스테이션/홍티아트센터/F1963/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부산관광안내소
(노포동, 부산역, 김해공항)/부산시립시민도서관/부산시중앙도서관/부산국립국악원/부산시립미술관/부산시민회관/부산문화회관/울속도문화회관/금정문화회관/동래문화회관/영도문화예술회관/해운대문화회관/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상상공간 아르케/모퉁이극장/부산지역 작은도서관, 민주공원 등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 재단 기념품 증정
-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 **일반회원** : 매월 1만 원 정액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50만 원 정액 납부
- **평생회원** :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scf.or.kr ▶ 열린광장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 문의전화 :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 051-745-7251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 (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스테이션, 흥티아트센터,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또따또가 운영센터, 영화의전당, 부산시립미술관, 영광도서관, 민주공원,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처 문의 : T. 051-745-7224 E-mail. bscf@bscf.or.kr



박상환 - The same crowd
mixed media, 35x70x140(cm), 2018.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744-7707 F. 051-744-7708-9

www.bscf.or.kr



ISSN 2586-1077